

11
2021
VOL. 305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ARE YOU READY FOR TOMORROW

?

Korea Desk 021-2078-5877

<http://www.kiwoom.co.id>

KIWOOM
SEKURITAS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내일에 투자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가 함께 합니다



SCAN THE QR CODE TO FOLLOW US ON SOCIAL MEDIA AND DOWNLOAD OUR KIWOOM HERO

OK OTORITAS
JASA
KEUANGAN

IDX
Indonesia Stock Exchange
member of
WFE OF ECONOMIA

kpei

ksei
Indonesian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Treasury Tower 27F, District 8 Kawasan SCBD Lot 28,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12190
T. 021-5010-5800 | Korea Desk 021-2078-5877

Larger than life.

STARIA 출시



천연가죽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7인승)



천연가죽 스윙블링 시트 (9인승)



10.25인치 LCD 클러스터 및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듀얼 선루프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 가격 및 기타 상세내용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참조



 **HYUNDAI**

Call Center: 0 800 1 878 878 (Toll free 24 hours) www.hyundai.com



Hyundai Motors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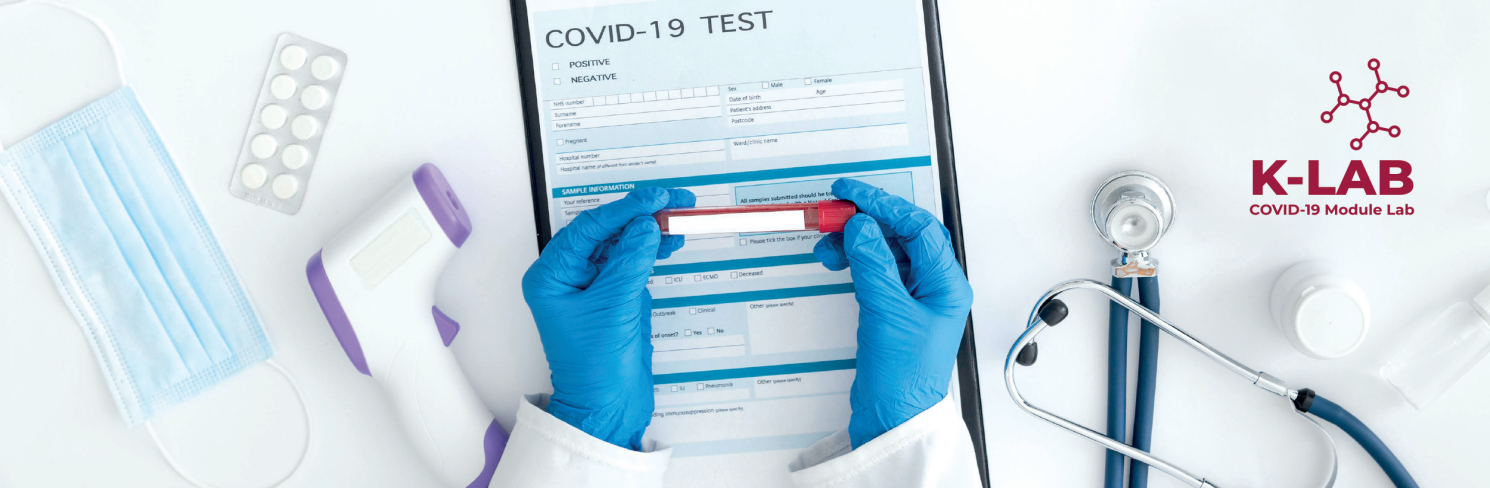
@hyundaimotorindonesia



Hyundai Motors Indonesia



@hyundaimotorid



K-LAB
COVID-19 Module Lab



주인니대사관 공식지정 검사기관

COVID-19 PCR 검사센터

어르신, 맘 편히 검사 받으세요!

한국인 임상 병리사가 상주하는, 대사관 공식지정 검사기관 K-LAB에서 65세 이상 교민 분들에게 무료 PCR 검사를 진행 합니다. 인니 교민 사회에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기에,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맘 편히 조기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대 상 : 65세 이상(신분증 기준 1955년생 이전 출생) 어르신
- 기 간 : 2021년 7월 15일 ~ 2022년 3월 31일
- 예약방법 : QR CODE, 한국인 전용 지원 센터 예약 후,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

우리 국민들을 '연결' 합니다.



※ LX인터내셔널에서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선생님들에게도 정기무료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

7:00 AM ~ 7:00 PM / 일요일 휴무
당일 결과 희망 시 11시까지 방문 필수

- K-Lab은 LG에서 분리해 새롭게 출발하는 LX그룹의 LX인터내셔널에서 운영됩니다.
- 본 검사실은 한국 전문 검사기관의 자문을 받아 코로나 검사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현지 보건부의 인허가를 득했습니다



+62 811 1900 5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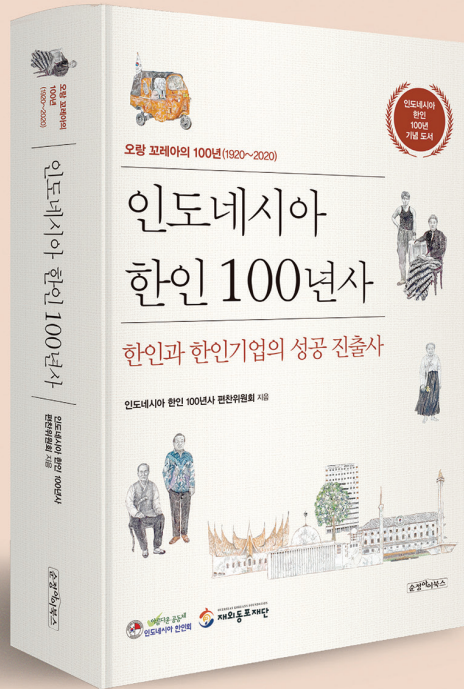
한국인 고객 전용 지원 센터
& Whatsapp & 카카오톡



QR CODE 간편 예약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 역사를 집대성한 책

★인도네시아 한인과 한인기업의 역사와 성공 이야기★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 지음
양장본 · 판형 163×235 쪽수 512

적도에서 펼쳐진 한인들의 치열한 삶과 도전의 역사! 열정 그리고 꿈!



· 인도네시아에 대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역사 사용서 ·
인도네시아의 성공적 진출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제시하다.

- ★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개척 도전사와 '산업별 한인기업 50년사(史)' 총망라
- ★ '오랑 꼬레아'가 인도네시아 땅에 새긴 특별한 삶의 현장 보고서

순정아이북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개인회원께는 <인도네시아한인100년사> 책자 요청시 무료로 드립니다.
연락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 1960 308 (지역에 따라 배송비 개인부담)



월간 한인뉴스 11 2021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contents

2021. 11. 통권 305호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람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8

2021년재인도제시야한인회 회장단회의

10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니대선 '거리정치' 옛말.. 소셜미디어 코로나 그리고 한류

12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대상 원격진료 시행 안내



표지 사진: Pasar Bendungan Hilir
조현영

- | | |
|---|---|
| 14 이코노미 인사이드 - 두 도서 이야기 <황준규> | 44 발바닥이 뜨거운 아이 <성유림> |
| 16 JKS 소식 | 47 잘란 잘란 동네 한 바퀴 <김가온> |
| 18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47 - 독재자의 길 | 48 열두 달의 식물 칼럼- 삶의 속도 <권영경> |
| 22 월간 뉴스브리핑 <데일리인도네시아> | 50 제 11회 인도네시아이야기, 제 1 회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문학상 당선작 발표 |
| 26 두 개의 시선 - 파푸아의 새 천 국의 새 <헬른> | 52 행복에세이 - 격리의 기억 <이병규> |
| 28 나 바 수 <민선희> | 55 WE ARE STARS |
| 32 자카르타 맛집탐방 - SERIBU RASA <주윤지> | 56 음식물쓰레기 효율적으로 버리자 <조웅희> |
| 35 책임 답하다 6 - 동남아시아에서 '빠라니깐'의 역할과 의미
<조연숙> |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303) <이승민> |
| 37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정창훈> | 60 편집장 모니터 - SAVE THE CAT <홍석영> |
| 40 말루쿠제도에 얹힌 유럽 열강의 욕망 <유은규> | 68 생활정보 |



제7대 한인회장 선출 입후보 등록 공고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하여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정관 제11조, 12조, 13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사항에 의거 입후보 등록 및 투·개표 진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후보등록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 2021년 11월 15일(월), 15일간
2. 등록접수장소 : 선거관리위원회(재인도네시아한인회 사무국으로 구비서류를 밀봉하여 제출)
3. 후보 자격
 - ① 본회의 임원으로서 지난 3년간 회비 및 찬조금을 매년 납부한 자
 - ② 만45세 이상인 자로 인도네시아 체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③ 한인사회에서 덕망 있고 도덕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④ 징역 6개월 이상의 확정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⑤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될 시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과점주주 혹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4. 등록 구비서류

한국 국적 혹은 제3국 국적보유자	인도네시아 국적보유자
1. 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 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이력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A4용지 2~3 페이지 정도)	3. 자기소개서(A4용지 2~3 페이지 정도)
4. 상반신 사진(4cm x 6cm) 1매	4. 상반신 사진(4cm x 6cm) 1매
5. 여권 사본 및 KITAP 혹은 KITAS 사본	5. 국적부여 대통령결정서 사본
6.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6. 주민등록증 사본
7. SKCK 원본	7. SKCK 원본
8. 후보등록금(US\$50,000) 납부증명은행 Slip사본	8. 후보등록금(US\$50,000) 납부증명은행 Slip사본
9. 입후보등록신청자 서약서(소정양식)	9. 입후보등록신청자 서약서(소정양식)

5. 후보 등록금 입금처

은행명	Woori Saudara	KEB Hana Indonesia
계좌(USD)	200-913-783-696	220-500-7893
계좌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6. 투표일자 및 장소
 - ① 투표일자(잠정) : 2021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경
 - ② 투표장소 : 투표 전 확정하여 재 공지

※ 선거 준비과정에서 투표방식 또는 일정변동 시 이를 준용하며 재 공지기로 함
7. 투표 및 개표 진행
 - ① 투표권자 : 정관 제5조(자격) 1항의 1 및 제24조(이사회) 3항에 근거한 임원
 - ※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자 자격유지에 착오 없도록 11월 22일까지 임원회비 납부 요망
 - ② 투표방법 : 무기명 비밀투표
 - ③ 입후보자 합동연설 : 투표 전 각 후보자 1인당 15분 발표 진행
 - ④ 당선자발표 : 개표직후
8. 선거관련 문의처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장: 0815-1811-269, 간사: 0812-1960-308)

2021년 10월 29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의장 손 한 평



인니 대선, ‘거리정치’ 옛말... 소셜미디어, 코로나 그리고 한류



논설위원 신성철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또는 SNS), 코로나-19 그리고 한류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이 3년이나 남았지만, 주요 후보들은 이미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며 대중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한편에선 빌보드(입간판)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정치가 거리정치보다 효과적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소셜미디어가 처음 효과적인 정치홍보 수단으로 떠오른 시기는 2014년 대통령선거로,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활용됐다. 소통형 지도자로 인기를 끌고 있는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선 행정 사무소를 불시에 방문해 인기를 끌었고, 2014년 대선 운동 기간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거 공약을 알리고 유권자들과 활발히 소통해 당선됐다. 2019년 재선에 성공한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지만, 국정운영을 비롯한 정치 활동을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국민들에 알림으로써 식지 않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도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화근이 돼 낙선된 사례도 있다. 바수키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후)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재선에 도전장을 낸 후 2017년 5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관내 빨라우스리부 군(郡) 주민들과 대화하던 중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언급했다가 신성모독 논란에 휘말렸다. 아후 주지사의 당시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또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 왜곡돼 전달되면서 이슬람 강경파가 주도한 10만여명의 대규모 시위로 번져, 결국 선거에서 패했고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됐다.

정치에서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뉴미디어인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데는 소셜미디어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내용은 확인하지도 않고 ‘좋아요’ 나 ‘팔로잉’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네트워킹이 강조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지지를 끌어들이는 과정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제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정치 마케팅을 정당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독립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유권자와 잠재적 지지자에게 호소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온라인에서 ‘정치인의 셀럽화’라고 부른다. 리드완 까밀 서부자바 주지사는 인기를 높이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유명 정치인 중 한 사람이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비교해보면, 리드완 까밀 주지사는

1,300만 명 이상으로, 대선후보 경쟁자인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500만 명), 간자르 뿌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340만 명), 뿌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490만 명)에 크게 앞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니스, 리드완, 간자르 등 세 유력 대선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2024년 대선 후보 상위 7명에 포함됐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는 뿌라보워 총재의 지지도를 아직 넘지 못했지만 많이 따라잡고 있다. 간자르 주지사는 자신의 업무활동을 홍보하고 연설을 중개하기도 하며 거리음식점을 방문하는 소소한 활동도 방송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지난 5월에 간자르 주지사는 5조 루피아 규모의 한국기업 KCC글라스의 중부자바 공장 기공식 동영상을 게재하며, 노동자 1,200명 고용효과에 대해서 홍보했다.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K-Pop을 비롯한 한류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활발할 전망이다. 2019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린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사흘간 짧은 방한 일정 중 시간을 쪼개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를 만났다. 인도네시아 TV와 신문이 조코위 대통령과 슈퍼주니어가 만나는 장면을 크게 보도하면서 정치인의 K-Pop 활용에 경쟁이 붙기도 했다. 최근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현지에서도 뜨겁다. 카페, 쇼핑몰 심지어 공무원 시험장에 오징어게임 경비원 복장을 한 감독관이 등장해 화제가 됐다. 차기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한류가 어떤 모습으로 인도네시아 젊은 층을 비롯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지 자못 궁금하다.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대선 후보들도 있다. 골카르당의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토 대표와 여당 투쟁민주당(PDIP)의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이 2024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홍보용 빌보드를 수많은 길가에 세웠지만 홍보 효과를 내지 못했고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가능성을 높이지 못할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다. 비평가들은 이를 아는 정치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쉰또 아디 위보위는 “그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정치적이지 않은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정치인들이 온라인 셀럽이 되는 현상에 대해,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이 아닌 보여주는 이미지에 기반해 후보를 선택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차기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라고 묻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간자르 중부자바 주지사가 뿌라보워 그린드라당 총재를 앞지르고 1위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뿌라보워 총재를 제쳤다. 인도네시아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1회 중임을 할 수 있는 만큼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뿌라보워 그린드라당 총재는 여당연합에 합류해 국방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투쟁민주당 내에서는 메가와티 총재의 친딸인 뿌안 국회의장과 떠오르는 스타 간자르 중부자바 주지사가 경쟁하고 있다. 투쟁민주당 후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메가와티 총재이다. 그의 선택에 따라 투쟁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여당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2014년과 2019년처럼 메가와티 총재는 대선 승리를 위해 딸 대신 간자르 또는 뿌라보워를 선택할까?

♣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대상 원격진료(비대면 진료) 시행 안내 ♣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인도네시아 한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국 전문의료진과의 원격진료 외(外), 의약품 배송서비스를 One-Stop으로 해결해 줄 ‘대응제약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지난 8월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명지병원’과의 MOU 체결로 시범운영중인 온라인 원격상담에 이어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그간 자유왕래 불편으로 의약품 수령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기본적인 의약품뿐만 아니라 기존에 복용하던 만성질환약 등의 수령도 가능해져, 유익하고 경제적인 온라인 의료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래 첨부한 안내지의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오픈 카톡 링크’로 문의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URL : <https://open.kakao.com/o/gPcAUMFd>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해외에서 건강관리, 제대로 하시기 힘들셨죠?

“한국 의료진만큼 나에게 잘 맞는 의료진을 찾기가 어려워요”

“현지 언어로 진료해서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고,
의사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의사를 만나는데만 10~20만원의 비용이 들어서 부담되요”



이젠, 아플 때 참지 말고 한국 의사에게 진료 받으세요



진료 신청서만 작성하세요!

진료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국내에서 준비해드립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의료진과 연결!
국내 보험급여가 정지된 경우도, 초진환자도
얼마든지 진료 및 상담 가능합니다.



세부내용 안내 및 신청

국내 의료진의 수준 높은 진료를 편하고 안전하게!



수준 높은 진료

해외에서도 국내의료진에게 자세히 설명 듣고 정확하게 진료!

경제적인 비용

국내와 동일한 진료비 (비급여진료비 2만원)

※ 의약품 비용, 배송료 별도

안전한 진료

코로나 걱정 없이 집에서 예약부터 약수령까지 ONE-STOP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

STEP 1 접수



• 진료 신청

- 네이버폼 작성 (QR코드)
- 진료 희망일 최소 1일전 신청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로 환자차트 생성

STEP 2 진료 및 처방



• 화상진료 진행

- What's App, 카카오톡 이용
- 예약시간에 의료진이 화상 전화 연결

• 의약품 처방

- 필요시 처방전 발행
-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달 (PDF)
or 약국으로 전달

STEP 3 수납
의약품 발송
(현지 통관절차 진행)

• 수납 (계좌이체)

- 진료비/의약품비용/배송료 계좌이체
- SC제일은행 692-20-154194 권혁재
- ※비용은 진료후/배송후 별도 안내드립니다.

• 통관 서류 제출

- 서류 : 납세번호/여권사본/취업비자
- 제출 : 2130301@daewoong.co.kr

• 의약품 발송

- EMS / DHL 중 선택 가능
- ※ EMS : 비용 2~3만원 / 0일 소요
- DHL : 비용 20~25만원 / 1일 소요

STEP 4 의약품 수령 및 복용

• 통관절차에 따라 약 수령 후 복용

- 통관 : 약 3~5일 소요

재외국민 한시적 비대면진료 Ref.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월)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재외국민과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자에 대해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해당국의 법령 검토 및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

두 도서(圖書) 이야기

- 난장이 손에 들릴 부자되기 지침서(feat : 015B '수필과 자동차')

글: 황준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부장)

아내의 취미는 독서다. 특히 소설, 에세이 및 인문학 관련 베스트셀러는 빠뜨리지 않고 챙겨 읽어야만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것이라 안도라도 하듯 매월 서적을 공수하거나 e-book 앱을 이용하여 틈이 날 때마다 책을 읽는다. 그런 아내의 손에 (소설이나 인문학이 아닌)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이 들려 있는 모습을 처음 본 것은 올해 초 즈음이다. 한국의 지인들 중 몇이 과감한 부동산 투자의 성공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 같다. 얼마 전에는 아내의 권유로 채테크 관련 도서인 우석 작가(브라운스톤)의 '부의 인문학'을 e-Book으로 읽었는데 그냥 시시껄껄한 투자기법 소개일 것이라는 편견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 독학과 실전투자자로 담금질 된 작가의 거시경제에 대한 통찰과 투자철학이 매우 설득력 있고 그 주장에 매우 공감이 되어 재미있는 소설책 또는 남의 일기를 몰래 훑쳐 보는 기분으로 단숨에 끝까지 읽어 내려 갔었다. 그리고는 채테크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자책과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따라야겠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저축만으로 노후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사업주만 배불리며 인건비도 챙기기 힘든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는 것도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과 신도시 신축 상가빌딩의 구분등기 물건을 분양 받으면 자칫하다 임대도 못하고 오랜 기간 맘 고생 할 수 있다 정도를 제외하면 큰 줄기의 전략은 부채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열심히만 한다고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닌 만큼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전략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한 마음마저 들었다.

이렇게 세상의 돈의 흐름을 읽고 투자에 대한 확고한 세계관이 있어야만 든든한 노후설계를 넘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신재무장(?)을 할 즈음 문득 고등학교 때 읽고 정말 커다란 울림 (사실 충격이란 말이 더 적합하긴 하다)을 주었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떠올랐다. 소설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속에서 삶의 기반을 뺏기고 몰락해 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노동자를 착취하고 투기를 일삼는 부도덕한 부유층과 곤궁한 삶을 살아가는 빈민층의 삶을 대립적으로 그리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개발의 여파로 살던 집이 철거될 위기에 빠진 가난한 난장이 가족의 삶의 모습은 필자에게 산업화, 부동산 개발과 투



기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정서를 남기기까지 했던 것 같다. 물론 부를 쫓는 것이 천박한 것은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착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 초 나라를 들쭉였던 토지 개발 공기업의 임직원 비리 사건 및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스캔들에 이어 최근에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을 보면 소설이 발간되고 4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소설에 투영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이유가 시대를 뛰어넘어 인간사를 꿰뚫는 문학의 힘 때문인지 아니면 변한 것이 없는 우리사회의 자화상 때문인지 자못 궁금해 졌다.

자바섬의 지방 곳곳에 있는 공장들을 방문하면 수천명의 현지 직원들이 월급으로 원화 몇십만 원을 손에 쥐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리고 그 때마다 그들이 그리는 미

래설계에 대해 궁금해 했던 적이 많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당장의 생계에 대한 고민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다. 그러다 문득 그건 정말 오만한 생각이라는 뉘우침이 든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 개발로 수백 수천억원을 거두는 누군가나 혹은 이미 거인의 어깨에 올라 세상의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거나 최소한 그 방향을 알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누군가들에게는 필자가 그런 (오만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학창시절 소설과 시로 감성의 허기를 채웠을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난장이’가 되지 않기 위해 재테크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경제 채널을 시청하며 조급한 마음을 달래고 안심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필자 또한 아내의 손에 부동산 관련 재테크 서적들이 지금이 아닌 5년전 만에라도 들려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쓴 웃음이 났던 적이 있다. 그리고 학창시절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던 ‘015B’ 앨범의 수록곡 중 하나인 ‘수필과 자동차’의 가사에 다시한번 더 공감했다.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애덤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이유는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인간은 친절, 박애정신 동포애 같은 고귀한 심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기적인 본능이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고전’의 주장을 방패삼아 필자 또한 각자의 건전한 투자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는 것부터가 노후 준비의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해 본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향후 세상의 변화속에서 어떤 기회와 위협을 마주할지 고민하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곳에 나 자신을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하리라 마음을 다잡으며 결기에 찬 하루를 마감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소설집

마지막 시간에 교사가 물었다. “두 아이가 골목 청소를 했다. 한 아이는 알골이 새까맣게 되어 내려왔고, 또 한 아이는 그늘을 쫓아 나온 깨끗한 알골로 내려왔다. 제군은 어느 쪽의 아이가 알골을 씻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한 학생이 대답했다. “알골이 더러운 아이가 알골을 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교사가 말했다. “한 아이는 깨끗한 알골, 한 아이는 더러운 알골을 하고 골목에서 내려왔다. 알골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알골의 아이를 보고 자기도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깨끗한 알골을 한 아이는 상대방의 더러운 알골을 보고 자기도 더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학생들이 놀람의 소리를 냈다. “한 번만 더 문질러.” 교사가 말했다. “두 아이가 골목 청소를 했다. 한 아이는 알골이 새까맣게 되어 내려왔고, 또 한 아이는 그늘을 쫓아 나온 깨끗한 알골로 내려왔다. 제군은 어느 쪽의 아이가 알골을 씻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었다. 이번에는 한 학생이 일문 일문 대답했다. “저희들은 알골을 알고 있습니다. 알골이 깨끗한 아이가 알골을 씻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기다렸다. 교사가 말했다. “그 답은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아이는 함께 똑같은 골목을 청소했다. 따라서 한 아이의 알골이 깨끗한데 다른 한 아이의 알골이 더럽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교사는 침만 위했다. “외부우스의 띠라 쓰고 안과 갈을 구별할 수 없는, 즉 한쪽 면만 갖는 곡면에 대해 설명했다. ‘내부와 외부가 따로 없는’ 일체는 어느 한 면과 외부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입체로 대체 상상해 보자. 우주는 무한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없을 것 같다. 제군은 차차 알게 되었지만 인간의 지성은 터무니없이 긴사한 역할을 맡을 때가 많다. 제군은 결코 제군의 자신이 제군이 일할 이익에 맞추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내 수업의 마지막 말이다. 다른 인사들은 서로 생각하기로 하자.”



이성과감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조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국대사관 강당에 설치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2021년 10월26일서거)의 조문소에서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임원들과 사무국이 고인을 추모했다.

10월 28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주인니 한국대사관 강당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소가 운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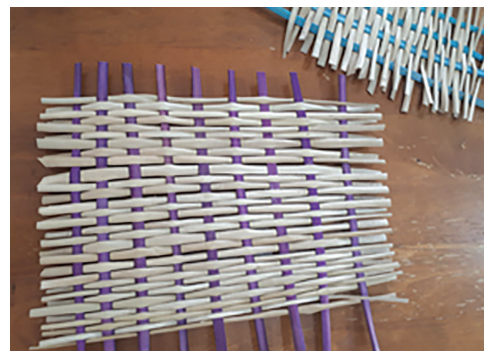
JIKS 초등과정 Ontact Indonesia Day 열려

지난 10월1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 초등과정에서는 다가오는 바틱데이(Hari Batik National)를 맞이하여 인도네시아 문화를 체험하며 더 가깝게 느껴보는 <2021 Ontact Indonesia Day>행사가 열렸다.

JIKS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데이 행사는 학생들의 주재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재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인도네시아 데이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전에 학습준비물을 드라이브 스루를 통하여 배부하여 각 가정에서 개별화된 인도네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중일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Wayang 만들기, 인도네시아 전통춤(Bali Kipas, Sumatra Payung) 배우기, Batik 체험하기가 포함되었다. 또한 학년 수준에 따라 1-2학년은 Kuda Lumping 춤 배우기, 3-6학년은 Menganyam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금년 인도네시아 데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한국과 다른 인도네시아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주재국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가며 글로벌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함양해 나갈 것이라 기대된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우리말 사랑주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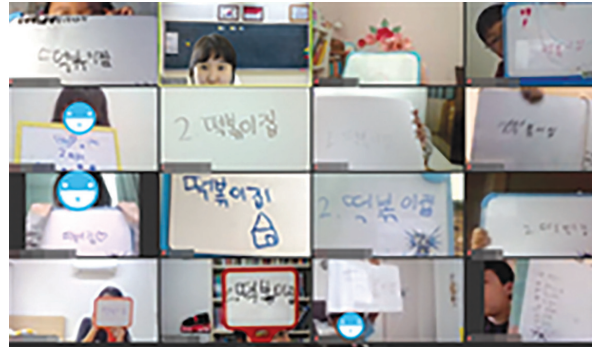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는 10월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10월 둘째 주를 우리말 사랑주간으로 정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글날 기념 활동이 전개되었다.

행사는 학년 수준을 고려하여 1-2학년 한글 동요 부르기 및 동요 맞춤법 퀴즈, 3-4학년 세종대왕 3D 미니어처 만들기 및 맞춤법 퀴즈, 5-6학년 토론대회, 9-12학년은 한글날 백일장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특히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토론대회는 사전 선발된 각 학급 토론대표팀이 사전에 발표된 주제를 가지고 입론서를 작성하여 동학년 친구들 앞에서 1시간 동안 정해진 토론절차에 입각하여 열띤 찬반토론을 펼치는 시간이었다. 참관하는 다른 학생들은 토론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찬반토론을 벌인 친구들을 응원하며 자신의 생각을 평가에 반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11학년 대상으로 독서토론의 과정을 통해 분석적·논리적·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 10월 8일(금) ZOOM으로 토론캠프를 진행하였다. 독서토론, 과학토론 중 본인이 원하는 1개 분야를 신청하여 1팀당 2명을 구성하여 독서토론은 지정도서 ‘민족의 죄인’으로 하였고 토론논제는 ‘민족 통합을 위해 생계형 친일은 용서



해줘야 한다’ . (CEDA방식 2:2 토론), 과학토론은 원 헬스(One Health)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실천방안제시’를 주제로 갈포퍼식(발표, 반론, 평론)로 진행하여 시사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다.

금번 우리말 사랑 주간을 통하여 학생들은 한글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한글 사랑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론대회를 통하여 고학년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인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독재자의 길



이리안자야 해방기념비(스넨, 구농사하리 인근인 라방안반땡 소재)

지난호에 이어

인도네시아군은 본격적인 침공에 앞서 서부파푸아에 자원병들을 침투시키는 비밀작전을 먼저 시작했다. 프리꼬라작전은 이미 선포되었지만 제공권을 장악해야 할 인도네시아 공군력의 대부분은 아직 자바섬에 밀집해 있었으므로 프리꼬라 작전 수행은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육군이 우선 자원병들을 운용한 침투작전을 벌이기 위해 해군엔 이들을 서부파푸아 해안으로 실어나를 운반선과 상륙정을, 공군에겐 병력수송용 허큘리스 수송기들을 요청했다. 이 작전은 공군으로서는 병력만 실어 나르면 끝나는 간단한 작전이었지만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어 공군사령부에서도 특정 고위장교들 외에는 이 작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암본제도에서 조직된 인도네시아 경찰군 기동타격대도 몇 개의 전투단을 이루어 서부파푸아 침공작전에 참가했다. 안톤 수자르위 총경이

이끄는 기동타격대 특수전대는 고롬섬에 조직되었고 그 침투조 하나가 서부파푸아 팍팍 해안에 상륙, 내륙으로 진주해 네덜란드 지역에서 사보타지와 파괴공작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된 프리꼬라 작전의 어설픈 침투단계는 1962년 1월 12일 인도네시아군을 레푸안에 낙하시킨 헤큘리스 수송기들이 기지로 복귀한 며칠 후인 1월 15일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의 군함들이 격돌하는 해전으로 비화되었다. 이를 ‘아루해전’이라 한다.

서부파푸아 해안 블락호엑의 아루섬 인근에서 인도네시아군은 해군 부참모장 요스 수다르소 해군 준장의 기함 KRI 마짤똌똌를 비롯해 수도모 대령의 KRI 하리마우, 그리고 KRU 마짤꿈방 등 어뢰정급 군함 세 척이 상륙병력 해병대원 150명을 싣고 항진 중이었다. 그날 밤 9시경 KRI 하리마

우는 자신들의 항로 좌 우측에 적 선박들이 잠복 중임을 레이다로 발견했는데 그 순간 네덜란드군의 로키드 P2V-7B 뱀뿔전투기가 기관포탄을 난사하며 기습해 들어왔고 네덜란드 군함도 KRI 하리마우 쪽으로 사격을 해왔다. 수도모 대령은 응사를 명령했으나 KRI 하리마우의 사격은 적함을 맞추지 못했다. 요스 수다르소 준장은 결국 퇴각을 명령했는데 KRI 마짚뚜뿔이 기관고장을 일으켜 의도치 않은 우측선회를 하기 시작했고 이를 공격하려고 포열을 맞추는 과정이라 판단한 네덜란드군은 즉각 집중포격을 가해왔다. 요스 수다르소는 최후의 순간까지 ‘과감히 응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KRI 마짚뚜뿔은 네덜란드 프리깃함 Hr.Ms. 에버트슨으로 돌진하며 사격을 가했으나 치열한 대응포격을 받고 22시50분 격침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요스 수다르소 준장과 29명의 인도네시아 수병들이 전사하고 55명의 생존자가 네덜란드군의 포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KRI 마짚뚜뿔이 마지막까지 응전하며 적의 주의를 끌어준 덕에 KRI 하리마우와 KRI 마짚꿈방은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고 무사히 전역을 이탈할 수 있었다.



자카르타의 볼로마스에서 탄중브리옥 항구로 향하는 도로가 요스 수다르소 해군준장의 이름을 따 JI. Yos Sudarso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그런 참패를 겪으면서도 인도네시아군의 침투작전은 그 후 8개월 동안 끈질기게 계속되어 562명의 병력을 해안으로 상륙시켰고 네덜란드군의 레이다망을 피해 저공비행한 인도네시아군 수송기는 1,154명의 공수부대를 서부파푸아 내륙 깊숙이 투하했다. 인도네시아군은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야간에만 수송기를 띄웠는데 이는 이 작전 초창기에 사용된 18명 정원의 경량 수송기 C-47 다코다기의 성능이 크게 떨어져 네덜란드군 뱀뿔 전투기에게 족족 요격당하곤 했기 때문이었다.

친신만고 끝에 침투에 성공한 병력은 1962년 4월부터 서부파푸아 전역에서 게릴라작전을 수행했지만 군사적 효율은 지극히 낮았다. 이 과정에서 94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병사들이 전사하고 73명이 부상을 당한 반면 네덜란드군의 피해는 경미했던 것이다.

하지만 1962년 중반까지 계속된 침투작전을 통해 이 지역의 병력을 꾸준히 증강한 인도네시아군은 두 번째 작전단계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소련에서 공급한 튜폴레프 TU-16 뱃저 전폭기에 AS-1 커널 / KS-1 커밋 대전박 미사일을 장착해 배치하여 네덜란드 군함 HNLMS 카렐 도르만과의 일전을 대비했다.

1962년 여름까지 인도네시아군은 서부파푸아의 네덜란드 주둔군 거점인 비악에서 대규모 상륙작전과 공습을 감행했다. 이 작전은 자야위자야 작전이라 명명되었는데 소련과 동구권에서 지원된 여러 척의 군함들을 포함한 100여척의 함선이 동원되어 괄목할 만한 병력을 움직였다. 이는 인도네시아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작전이었다. 비악섬에서 7천 명의 공수부대, 4,500명의 해병대, 그리고 13,000명의 보병들이 동원되어 네덜란드 기지들을 수륙양면으로 공격하는 동안 1962년 8



C-47 다코타 수송기 넵툰 전투기

월 13일과 14일에 인도네시아 공수부대가 북서쪽 방면의 소롱과 남동쪽 방면 머라우께에도 대거 투하되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네덜란드 군정 보국과 경찰기에 사전 노출된 상태였으므로 인도네시아군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서부파푸아 전역의 네덜란드 해군은 구축함 다섯 척, 프리깃함 두 척, 잠수함 세 척, 탐사선 한 척, 보급선 한 척 그리고 유류탱커 두 척을 보유하고 공군력은 해군에서 지원된 뱃톱전투기 11기, 호크 헌터 F-MK4 12기, 호크 헌터 MK6 12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 네덜란드 지상군은 다수의 대공포대, 해병대 5개 중대, 3개 보병 대대를 보유했다. 방어계획의 일환으로 네덜란드군은 마리트 6 NNG 를 사용해 인도네시아군 통신체계를 교란시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미국은 이 사태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할까 우려하며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를 협상테이블로 등떠밀었다. 1962년 2월 미 검찰총장 로버트 케네디도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인도네시아와의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미국은 네덜란드를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미외교관들이 총력을 다한 결과 1962년 8월 15일 뉴욕협정이 체결되는데 당초 서부파푸아의 독립을 지지했던 호주도 미국의 압력을 받아 인

도네시아와의 합병지지로 선회했다. 뉴욕소재 유엔본부에서 체결된 뉴욕협정엔 인도네시아 수반 드리오 외상과 네덜란드측의 얀 헤르만 반 로엔, C.W.A. 슈르만이 각국 대표로 나서 서명한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네덜란드는 서부파푸아의 통치를 유엔사무총장 산하의 유엔임시집행위원회(UNTEA)에 위임하며 UNTEA는 이를 다시 인도네시아에 양도한다.
2. 신탁통치기간 동안 유엔깃발을 게양한다.
3.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국기의 게양은 유엔사무총장과 각국 정부의 협약에 따른다.
4. 치안유지를 위해 유엔은 파푸아 경찰력을 지원하며 현지 네덜란드군과 인도네시아군은 신탁통치기간 동안 유엔사무총장의 관할하에 둔다.
5. 인도네시아는 유엔의 지원 아래 서부파푸아의 주민들에게 다음 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자유롭게 결정할 기회를 공여한다.
 - a. 서부파푸아 주민대표들간의 협의.
 - b. 인도네시아와의 합병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일정 확정.
 - c. 국민투표용지 준비
 - d. 국제표준에 따라 실시될 국민투표에 참여할 모든 성인남녀의 권리보장
6. 국민투표는 1969년 말 이전에 실시한다.

네덜란드는 이 뉴욕협정을 비준함으로써 서부파



튜폴레프 TU-16 뱃저 전폭기(좌), KS-1 커밋(커널) 대선박 미사일(우)

푸아 합병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의지를 마침내 인정했다. 네덜란드 정부 역시 또 다시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자야위자야 작전은 조기에 종결되고 1963년 서부파푸아는 일단 인도네시아 영토에 합병되었다.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식민지를 넘겨주기로 결정한 원인은 사실 미국의 입김이었다. 네덜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우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케네디 행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손을 들어준 것은 냉전이란 당시의 특수상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냉전의 영향으로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남북이 결코 화해하지 못할 철천지 원수가 되어가던 시기에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외교적 출타기를 하며 자국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유도해 냈던 것이다. 결국 서부파푸아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강경한 군사행동과 소련의 적극적 군사원조가 역설적으로 미국에게 경종을 울려 서부파푸아 분쟁에서 적국이 되어가려는 인도네시아 편에 서서 우방인 네덜란드를 압박하게 했던 것이다. 국제정치란 참 오묘한 측면이 있다.

뉴욕협정은 미외교관 엘스워스 병커가 추진한 협상의 결과였다. 그는 네덜란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네덜란드-인도네시아 간의 휴전을 중재

하면서 10월 1일 네덜란드가 서부파푸아를 일단 유엔임시집행위원회(UNTEA)에 위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여기서 한 박자 쉰 후 1963년 5월 1일 UNTEA가 다시 인도네시아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부파푸아의 수도였던 홀란디아는 꼬따바루로 이름을 바꾸었다.

서부파푸아의 영유권이 손에 들어오자 안면을 바꾼 인도네시아는 1963년 9월 5일 서부파푸아 지역을 ‘격리 지역’으로 공표하고 강압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뉴기니위원회를 해산시키고 파푸아 국기와 국가를 금지했는데 이는 파푸아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1965년 독립파푸아조직(OPM)이 조직되기에 이른다. 이를 짓누르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측은 살인, 감금, 고문은 물론 폭격까지 포함하는 가혹한 통치를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 네덜란드 식민정부나 일본군정에 비해 절대 못하지 않은 강력하고도 참혹한 것이었고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10만여 명의 파푸아인들이 인도네시아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OPM 역시 자체 군대를 조직해 저항에 나섰지만 병력이나 화력 면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다음호에 계속

■ 정치·사회관련

조코위 정부 7년 성적표... ‘파란불’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출범한지 7년이 되는 시점에서 재임기간의 국정운영을 되짚어보고, 남은 3년의 과제를 점검해본다고 10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조코위는 중부자바주 중소도시 솔로(수라까르따) 시장 임기 중인 2012년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자카르타 주지사 임기 중 대통령에 당선돼 2014년 10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정치적 기반이 약한 조코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집권 7년이 된 조코위는 이러한 의구심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평가다.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으나, 강한 정치적 자산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조코위는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탐색했다. 한편 진보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 정계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과두주의적 이해관계를 조코위 대통령이 타파해 주길 기대했으나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견고한 지지율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은 2019년 4월 71.4%에서 2020년 10월 68.8%로 소폭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쓴 8개월이 포함됐음에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사이폴무자니연구소(SMRC)가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은 2021년 9월에도 68.5%로 여전히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조코위가 대체로 선방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팬데믹 상황이 계속

되고 있지만, 지난 6~7월 사이 델타 변이가 주도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실시됐고, 응답자의 64.6%는 조코위 행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조코위 대통령 1기 정부는 2014년 출범 당시 소수의 정당과 연립정부를 맺음에 따라 국회 과반을 넘지 못해서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 힘든 첫 해가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질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치는 후원 기반 시스템 즉 야당이 정부 지지로 돌아서면 보상으로 장관직을 주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기술을 배우면서 이제는 야당 사이의 권력투쟁을 이용해 더 많은 정당을 연정에 합류시켰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대선에서 2014년보다 큰 표차로 승리한 후 맹렬히 반대하던 야당들까지 여당연합에 끌어들이는 수완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과 2019년 선거에서 상대편 대권후보로 나섰던 프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를 현 국방장관으로 영입한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LSI(Indonesian Survey Institute)의 자야디 하난 대표는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도 계속 연정 정당을 추가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연정에서 이탈하는 정당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백업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더 큰 권력을 다지기 위해 빅텐트(big-tent) 연정을 온전히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PAN의 합류이다.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아리야 페르난테스 연구원은 “처음에는 조코위 대통령이 유약하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매우 전략적이고 정당들과 교섭에 능숙한 인물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레이덕 대통령?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조코위 대통령의 리더십이 잘 먹히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야디 LSI 대표는 현재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 중 일부가 2024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2022년 이후 이탈하게 되면 조코위 대통령의 행보가 크게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경우, 두 번째 임기 중에 센추리은행 스캔들과 부패혐의로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정치적·법적 논란에 시달리면서 대통령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일부 친정부 정당들조차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유도요노 정부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여당연합의 내분도 가시화됐다. 요하네스 교수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그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켜서 결국 레이덕에 빠지게 했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비판이 쏟아져도 자신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보다 경제가 우선

조코위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이자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경제와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이끌어냈던 많은 사회정치적 개혁 의제를 버리기로 한 것같이 보인다. 조코위 대통령은 동부칼리만탄주로 행정수도 이전을 임기 중 최대 업적으로 삼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인도네시아과학원(LIPI) 정치연구센터 피르만 누르 센터장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옹호하거나 강화하려는 조코위의 의지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르만은 “유도요노 시대보다 더 확연한 공포 분위기이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석유보조금 관련 시위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한 반대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진다” 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 2기 임기에 부패방지위원회(KPK)의 권위와 독립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KPK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반부패기구이자 개혁운동의 몇 안 되는 유산 중 하나였다. KPK는 일시적이었을지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약탈적인 정치와 만연한 부패를 멈추게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개혁주의자로서 이미지를 표방해왔지만, 아들과 사위가 주요 지방도시의 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왕조주의자나 혈통주의자가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코위, 확고한 기반으로 7년차 진입

10월 20일은 조코위 집권 7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개헌하지 않는다면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국회(DPR)를 구성하는 정당 9개 중 7개가 여당연합에 참여하고 있고, 여당연합은 DPR의석의 82%를 점유했다. 이것은 정부가 거의 저항 없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당연합은 지난 2년 동안 조코위를 확고히 지지했지만, 2024년 차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분열할 것이다. 일부 정당들은 이미 자당의 대통령후보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동안 조코위는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분주할 것이다. 여당연합의 불화 조짐은 2024년 선거 날짜를 논의하면서 나타났다. 여당인 투쟁민주당은 2월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조코위는 5월 개최를 추진한다.

조코위는 권력과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마루스 아민 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슬람단체, 비즈니스 로비단체, 군과 경찰 등 영향력이 큰 이익집단과도 정치거래를 한다. 조코위는 향후 3년 동안 국민과 여당연합의 정당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몇 장의 카드가 더 필요할 것이다. 조코위는 인도네시아가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국가순위를 현재 16위에서 5위로 끌어올려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을 꿈꾼다고 말했다.

■ 경제 관련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2,100개” 금융감독청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은 2021년 9월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유니콘 7개와 데카콘 2개 및 스타트업 2,100개가 있다고 밝혔다. 웹보 산토소 OJK 청장은 지난 10월 11일 “스타트업의 성장은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당국의 정책과 분리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고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부가가치 제공,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촉진, 금융서비스 보급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웹보 청장은 디지털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OJK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디지털 생태계에 진입하도록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경제가 2025년까지 약 23% 성장해 1,24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생산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조니 빨라떼 정보통신부 장관이 말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0년에 440억 달러로 평가됐고, 국내총생산(GDP)의 4%를 차지했다.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에서 인도네시아의 비중은 약 42%이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인구는 2021년 1월 기준 2억2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3.7%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 주택 가격, 향후 2년 간 상승할 것: 무디스

2022년과 2023년 억눌렸던 수요와 우호적인 정책 영향으로 가격 상승 전망

인도네시아 주택 가격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장기간 약세를 보였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무디스 애널리틱스(이하 무디스, Moody's Analytics)가 전망했다. 무디스는 인도네시아 주택 가격지수가 2021년에 1.5% 상승하고, 이어 2022년에 5%, 2023년에 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 주택 가격지수는 올해 4.42%,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3.45%와 3.6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가격지수란 전국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일정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한 라스과 이레스산식을 적용하여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구성비를 가중치 값으로 부여하여 산출하는 지표를 말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자료에 따르면 주택 가격 지수는 2015년 이후 분기별로 전년 동기 대비 5% 미만의 부진한 상승세를 보였다. 연간

기준으로 6% 이상의 성장은 2014년에 마지막이었다.

무디스의 소니아 주 이코노미스트는 저금리, 세제 혜택, 외국인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투자에 호재가 되는 요인들이 있고, 억눌린 수요가 풀리면서 2022년과 2023년에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4분기까지는 델타변이 확산, 지역 봉쇄, 노동시장 약세 등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코로나-19 2차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3분기 주택가격지수는 1.12%로 2분기의 1.49%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Colliers International)의 페리 살란또 부국장은 주택 가격이 1년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인니 탄소제로, 2021~2030년에 매년 2000억 달러 투자해야

인도네시아 정부가 2060년 탄소중립(또는 Net-Zero)을 달성하려면 향후 9년 동안 저탄소 프로그램에 연간 1500억~2,0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인용, 13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세계 8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탄소중립을 2060년 또는 그 이전까지 달성하겠다고, 그 시기를 당초 2070년에서 앞당겼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를 혁신하는데 2021년과 2022년 기간에 연간 200억 달러가 소요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에 연평균 1500억~2000억 달러 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4.5%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소요 비용의 일부를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세 수입으로 충당하고, 다른 일부는 화석연료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투자금을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화석연료보조금을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설정하면 2030년에 GDP의 2.2%에 해당하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이 중 일부를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더라도 나머지는 녹색 기반 시설 구축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당국은 이어 인도네시아가 숲, 이탄지, 맹그로브 숲 등을 성공적으로 복원하고 보호하는데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 등 다자 대출 기관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주요 기부자로부터의 지원금도 기대했다.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소비량이 2060년에는 지금보다 3배 많은 9.3테라줄(terajoules)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해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IMF,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 3.2%로 하향

IMF, 세계 경제성장 둔화 경고...미-중 전망치 동반 하락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네시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한 충격과 백신접종률이 낮은 이유를 들어,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하향 조정했다. IMF의 10월 전망치는 지난 7월 전망치 3.9%보다 0.7% 내린 것.

지난 10월 13일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보고서에서 IMF는 코로나-19로부터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디고, 추가적인 보건 관련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6.0%에서 0.1%p 내려 5.9%로 조정했다. 2022년 전망치는 4.9%로 유지했다.

IMF는 이어 미국과 일부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변경하면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6%로 지난 7월 전망보다 1%p 낮췄다.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조정은 소비재 제품의 공급망 혼란이 반영됐으며, 이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중국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월보다 0.1%p 내린 8%로 조정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공공투자가 예상보다 크게 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부동산 부문을 포함한 기업의 대규모 채무 불이행이 위험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Burung Cendrawasih

파푸아의 새 천국의 새



헬렌(Heylen)/ HOTEL GRAN MELIA

10월에 파푸아에서 제20회 전국체전(PON, Pekan Olahraga Nasional XX)이 열렸습니다. 자야 푸라(Jayapura)에 있는 경기장(Stadion Lukas Enembe)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개회로 체전의 막을 열었습니다. Lukas Enembe 경기장은 아태지역 최고의 경기장으로 손꼽힙니다. 파푸아에서 처음으로 체전이 열려 그 의미가 더 큼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파푸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파푸아 땅, 파푸아 사람들이 조코위 대통령의 마음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파푸아’ 하면 부아 메라(buah merah)와 야자 설탕(sagu), 수 만 헥타르로 펼쳐진 푸른 농장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파푸아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쫘드라와시(cendrawasih, 극락조/burung surga)’는 들어보셨는지요. 파푸아를 ‘부미 쫘드라와시(bumi cendrawasih, 극락조의 땅)’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 새를 ‘살아있는 보석’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Living Gem (permata yang hidup). 조류의 세계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이색적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극락조’, 천국의 새로 불리우나 봅니다. 특히 수컷의 깃털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노란색, 갈색, 검은색, 흰색, 오렌지색, 파란색, 빨간색의 조합이 정말 알록달록합니다.



보통 켄드라와시를 발견할 땐 날고 있는 모습이거나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있을 때입니다. 땅으로는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켄드라와시 중에서도 Cendrawasih Raja는 (raja ‘왕’) 15 센티미터이고, 부리가 검은 색인 켄드라와시가 가장 큰 새인데 110 센티미터까지 합니다. 켄드라와시는 부리가 두껍고 뾰족합니다. 파파야, 람бут탄 같은 과일을 먹거나 거미, 달팽이, 메뚜기 같은 작은 벌레들을 부리로 잘라 먹기에 적합합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뿐만 아니라 파푸아뉴기니와 호주에서도 서식합니다.

파푸아 사람들은 켄드라와시의 깃털로 전통의상에 장식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새가 멸종되는 데에 한 몫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여성들이 쓰는 모자에 켄드라와시 깃털로 장식으로도 판매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태에 탐이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새를 잡는 바람에 그 수가 점차 줄어들다 보니 이제는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 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켄드라와시가 아주 멸종되지 않도록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파푸아 자연 서식지에서 뿐만 아니라 발리에 있는 ‘새와 파충류 숲 공원(Taman Burung dan Rimba Reptil)’이라는 곳에서도 증식하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 발리에서 ‘켄드라와시 메라(cendrawasih merah)’가 탄생했습니다. 아직 매우 적은 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새를 자연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새를 불법으로 잡게 되면 아무래도 살아남은 주변 새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불법 수렵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산림 벌채도 새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이유가 되는데, 자연림을 농경지나 주거지로 전환하면서 동물서식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정부는 켄드라와시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번역: 민선희)



Hiasan kepala





나는 바-하사로 두다뎌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먹방(Mukbang)’ , ‘한류(Hallyu)’ 등 24개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 관련 단어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국문화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익숙한 단어이지만, 이런 현상들을 인니어로 이야기 한다면 어떤 표현을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봅시다.

(sumber) 기사 출처 : BBC Indonesia (2021.10.10, ‘Mukbang’ , ‘Hallyu’ dan 24 kosakata Korea lainnya resmi masuk kamus bahasa Inggris terbitan Oxford)

Popularitas Squid Game dan BTS **menandai kejayaan** gelombang budaya Korea Selatan yang **tak juga menunjukkan tanda-tanda surut**.

☆ menandai 표시해준다, 즉 보여준다, 증명해준다, 방증한다

menandai kejayaan gelombang budaya Korsel 한류가 전성기라는 것을 방증한다

☆gelombang budaya Korea Selatan ‘한류’ 라는 말을 풀어 씀 gelombang = wave

☆ tanda-tanda surut 사그라 들리는 징조, 조짐

surut : mundur, berkurang, reda, turun 무언가가 퇴보하거나 줄어들거나 강도가 약해지거나 수위가 낮아질 때 ex) Rezekinya tidak pernah surut. 늘 복이 넘침. Semangatnya tak pernah surut. 열정이 늘 활활타오름. 열정이 사그라 든 적이 없음.

⇒ ‘오징어 게임’ 과 방탄소년단(BTS)의 인기는 /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 한류의 전성기를 / 방증한다.

Gelombang itu nampaknya telah berhasil mencapai Oxford English Dictionary (kamus bahasa Inggris yang diterbitkan Universitas Oxford).

⇒ ‘한류’ 가 이제는 옥스퍼드대학이 출판하는 영어사전인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까지 등재됐다 (mencapai 다다르다, ‘과도’ 가 옥스퍼드 사전에 까지 다다랐다는 것을 비유)

“Kamus Besar Bahasa Inggris” tersebut menambahkan 26 kosakata Korea ke dalam edisi terbarunya.

⇒이 옥스퍼드 ” 영어대사전 ” 은 최신판에 한국어 단어 26개를 추가했다.

Dengan penambahan ini, “kita semua berselancar di puncak gelombang budaya Korea” ujar Kamus Oxford dalam pernyataannya.

⇒ 옥스퍼드 사전 측은 이번에 한국문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정점에서 우리 모두 파도타기를 하고 있는 것” 이라고 비유했다.

☆ujar 말하다, pernyataan (= statement)

Edisi terbaru kamus Oxford itu memasukkan banyak santapan Korea, beberapa di antaranya:

banchan, kata benda: lauk pauk ukuran kecil berisi sayuran, disajikan dengan nasi sebagai bagian dari santapan khas Korea

bulgogi, kb: dalam masakan Korea: sebuah hidangan daging sapi atau daging **babi yang diiris tipis-tipis yang direndam dengan bumbu kemudian dibakar atau ditumis**

kimbap, kb: satu hidangan Korea berisi nasi dan bahan-bahan **lain yang dibungkus dengan lembaran rumput laut dan dipotong menjadi ukuran suap**

⇒ 옥스퍼드 사전 최신판에는 한국 음식단어도 많이 등재됐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반찬 (명사) : 야채로 되어 있는 적은 양의 반찬(lauk pauk*),한국 음식(한국적 특성의 음식)의 일부분으로 밥과 함께 내어놓음

불고기 (명사) : 한국 요리 관련 : 얇게 썬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양념에 재어 둔 다음 숯불에 굽거나 볶는 요리

김밥 (명사) 밥과 다른 재료들을 김에 싸서 한입 크기로 자른 한국 음식

*lauk-pauk 인도네시아어에서 말하는 lauk-pauk은 사실 메인 요리 같은 것을 말함. 고기나 생선류. 한국의 ‘반찬’ 과는 같은 개념은 아님.

Dengan kesuksesan internasional Squid Game, Parasite, dan BTS, **tidaklah mengejutkan** jika budaya pop Korea Selatan juga masuk ke dalam daftar ini.

hallyu, kb: meningkatnya **ketertarikan dunia internasional terhadap** Korea Selatan dan budaya populernya, diwakili dengan kesuksesan global dari musik, film, TV, fesyen, dan makanan Korea

k-drama, kb: satu seri televisi dalam bahasa Korea dan diproduksi di Korea Selatan





manhwa, kb: satu genre kartun dan buku komik di Korea, **biasanya dipengaruhi oleh** manga Jepang.

mukbang, kb: video, terutama yang disiarkan secara langsung, yang menampilkan seseorang menyantap makanan **dalam porsi besar** sambil berbincang dengan penonton.

⇒ ‘오징어 게임’ 과 ‘기생충’ ‘방탄소년단’ 이 국제적으로 성공한 만큼, 한국의 대중문화가 사전에 등재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류 (명사) : 한국과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인기가 증가함, 대표적으로 한국 음악, 영화, TV 방송, 패션, 음식이 세계적 성공을 이룬 것을 들 수 있음

K-Drama (명사) : 한국어로 한국에서 제작되는 TV 연속극(시리즈)

만화(명사) : 한국의 카툰 장르, 만화책, 대개는 일본 ‘manga’ 의 영향을 받음

먹방(명사) : 시청자들과 얘기하면서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여주는 영상, 특히 라이브 영상

Kamus Oxford menyatakan masuknya banyak kosakata Korea ini menandai pergeseran bahasa yang digunakan para penutur bahasa Inggris.

“Kosakata-kosakata ini **menunjukkan** masyarakat Asia di beberapa bagian benua tersebut **menciptakan dan mempertukarkan kata-kata ini dalam konteks lokal mereka**, kemudian **memperkenalkan kata-kata ini ke penutur bahasa Inggris sedunia**, membuat gelombang Korea terus **beriak di tengah samudra kosakata Inggris.**”

⇒ 옥스퍼드사전 측은 이러한 한국 단어가 많이 등재된 것을 보면 영어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단어들은,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아시아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자신들의 현지 문화 맥락속에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교환하고 하면서 전세계 영어 화자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한류문화가 영어 단어로 가득한 해양에서 파도타기를 하며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Cara Berpikir Global’

Keberhasilan Squid Game atau Parasite adalah buah ‘cara berpikir global’ dari para produsen budaya Korea, menurut Dr. Hye-Kyung Lee dari King’s College London.

“Ini sudah lebih dari 10 tahun sejak awal kesuksesan K-pop, jadi para produsen budaya Korea sudah memiliki cara berpikir global,” ujar Dr Lee, yang meneliti budaya dan seni, ketika **ditanya** soal kebangkitan K-drama dan K-pop.

Dia mengatakan tokoh-tokoh dalam K-drama bisa **‘nyambung’** dengan masyarakat Inggris dan dunia, **kendati** ada perbedaan geografi dan budaya.

“Karakter-karakternya tidak memiliki banyak harapan, mereka tidak punya masa depan dan hanya berjuang untuk bertahan hidup.”

“Drama dan film ini amat menghibur, serta punya keunikan yang dapat menyentuh hati orang-orang di seluruh dunia.”

⇒ ‘글로벌 하게 생각하는 방법’

영국 King’s College의 이혜경 박사는 /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이 성공한 이유는 한국문화 제작자들의 ‘글로벌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품을 연구하는 이혜경 박사에게 K-drama와 K-pop의 부흥에 대해 물었더니 “K-pop이 10여년 전부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으니, 이제는 제작사들이 이미 한국문화를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혜경 박사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이 지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세계인들에게 ‘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nyambung** (어근 sambung) 연결이 된다, 말이 통한다 Kami nyambung banget kalau bicara tentang K-drama.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면 저희는 아주 잘 통해요. Ah, gak nyambung. 아! 안 통하네 (딴 소리하고 있네. 못 알아 먹고 있네 등등)

이혜경 박사는 “드라마 인물들을 보면, 희망이 별로 없고 미래도 없고...고군분투하며 삶을 연명할 뿐인.. 그런 인물이 많다. 드라마와 영화가 큰 위안을 주고 전 세계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Jonghyun ‘Shinee’ dan ‘sisi gelap’ industri musik K-pop

샤이니 중현과 K-pop 음악산업의 명암

(sisi gelap : 어두운 면)

“Mereka menampilkan kritik terhadap **kondisi sosial ekonomi dan masyarakat**, di mana **penonton bisa ‘nyambung’ melalui karakter-karakter ini.**”

⇒ 이혜경 박사는 한국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비판을 보며, 시청자들이 드라마 인물들을 통해 ‘통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풀이했다.

결국 한국드라마를 전세계인들이 즐기는 이유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감동을 담고 있어서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통하는 느낌! Nyambung!

나를 쑥쑥키우는 인니어질문은 여기로 ✉ hnsantara817@daum.net



SERIBU RASA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최근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000명 미만으로 특히, 자카르타는 PPKM Level 2로 하향 시행되며 끝이 안 보이던 코로나19의 암흑같은 긴 터널이 어느새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도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 아시죠? 이번 호에서는 PPKM Level 2 맛이 가족들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현지식당 <SERIBU RASA>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00가지의 맛’이라는 뜻을 가진 식당 <SERIBU RASA>는 식당이름처럼 메뉴도 꽤 다양합니다. 메뉴뿐만 아니라 지점도 상당히 많은데요, Gandaria City Mall, Lippo Mall Kemang, Plaza Indonesia, Central Park 등 주요 쇼핑몰 내에 입점되어 있어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많은 지점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오픈한 지점은 Gunawarman 지점인데요, 이 지점도 접근성이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식당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이 곳의 추천 메뉴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Grilled Lemon Grass Chicken(109,000루피아++)을 추천합니다. 메뉴판의 그림보다 양도 훨씬 많고, 무엇보다도 커리향이 야들야들한 살에 쫄 붙어있어 정말 맛있습니다. 닭고기가 보통 퍽퍽하여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단연코 좋아하실 음식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먹기에 정말 부드러운 순살이지요.

또한 레몬그라스와 함께 고기를 구워 상큼한 레몬향이 코를 상당히 자극합니다. 메뉴판 그림만 보고서는 언뜻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메뉴인데요. 꼭 한 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Taucho Tahu Udang(75,000루피아++)입니다. Taucho는 중국식 된장으로, 한국에서는 보통 황두장으로 불리웁니다. 황두장은 한국의 된장보다 짭맛이 덜하고 단맛이 강하며 감칠맛을 낸다고 해요. 주로 해물류 볶음요리할 때나 구이류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부와 새우를 다채로운 야채와 함께 볶은 음식인데요. 웬지 모르게 계속 끌리는 맛입니다. 야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그 맛이 궁금하시면 드셔보세요!

그리고 Grilled Squid Lime Sauce(118,000루피아++)도 있습니다. 달달한 소스를 발라 구운 오징어요리인데요. 겉들어 나온 라임을 살짝 뿌리고 삼발소스에 찍어 먹으면 그야말로 딱 맥주 안주입니다. 맥주를 절로 부르는 맛이죠. 메뉴판의 그림보다 오징어의 크기가 살짝 작아 다소 실망은 했지만 그 실망감보다 맛의 만족감이 더 높아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ineapple Fried Rice Phuket(80,000루피아++)입니다. 파인애플 속에 새우 볶음밥이 가득 담겨져 나옵니다. 나시고렝 치고 간이 그리 센 편은 아니라, 소스가 강한 현지 음식들 과도 잘 어울립니다. 보슬보슬한 나시고렝 이 맛은 왜 집에서 요리하면 안 날까요? 분명 불의 세

기 때문만은 아닐텐데 말이죠. 역시 나시고렝은 식당에서 먹어야 제 맛인가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카르타 내 손꼽히는 현지식당으로는 <Seribu Rasa> 외에도 <Plataran>, <Harum Manis>, <Lara Djonggrang>, <Bunga Rampai>, <Tesate>, <Kaum Jakarta>, <Agneya>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SERIBU RASA>

음식 종류 : 인도네시아 음식

가격대 : Rp 4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11:00~22:00 (변동 가능)

위치 : Jl. Gunawarman, RT.5/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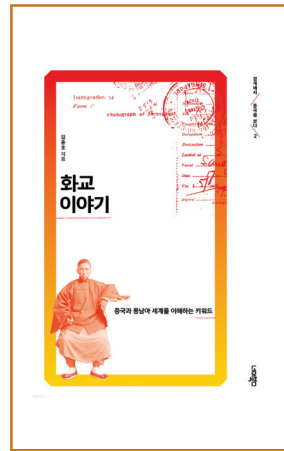
No. 28, Selong,

Kebayoran Baru, Jakarta

※ Google 참고

동남아시아에서 ‘빠라나칸’의 역할과 의미

제목 : 화교 이야기 중국과 동남아 세계를
이해하는 키워드
저자 : 김종호
출판사 : 너머북스
출판일 : 2021년 01월 29일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국장

자카르타 구도심에 있는 유럽풍 건물에 중국식과 자바식을 섞은 인테리어, 해산물과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서 중국식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을 ‘빠라나칸’ 레스토랑이라고 부릅니다. ‘빠라나칸(peranakan)’은 인도네시아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혼혈인’ 또는 ‘후손’이라는 뜻이 나오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싱가포르의 혼합문화’ 또는 ‘싱가포르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군도와 말레이 반도에 정착한 중국계 이주민과 현지 주민 사이에 형성된 혼합문화’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빠라나칸의 정확한 의미는? 형성 배경은? 중국계 혼혈인만 부르는 호칭일까? ‘빠라나칸’에 대해 책 <화교 이야기>(김종호 지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표로 인도네시아 상황을 추가했습니다.

<묻고 답하기>

(문다) 빠라나칸은?

(답하다) 빠라나칸은 외국(유럽, 아랍, 인도, 중국 등) 상인의 동남아 진출과 적응, 현지화 과정에서 탄생한 혼혈인과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문화를 일컫는다. 빠라나칸은 말레이어(말라유어)로 “현지에서 태어난 이(local-born)”를 의미한다. 빠라나칸은 종족에 따라 중국계 빠라나칸, 아랍계 빠라나칸, 네덜란드계 빠라나칸 및 인도계 빠라나칸 등으로 부른다.

(문다) 빠라나칸을 중국계 후손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혼혈이 아닌 중국계 후손도 빠라나칸이라 부를 수 있나?

(답하다) 동남아시아로 온 이주자 중 중국계 빠라나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중요성 역시 가장 큰 까닭에 중국계 빠라나칸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게 됐다.

역사적으로 중국인과 말레이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을 의미하지만, 지금은 꼭 혼혈이 아니더라도 2세대, 3세대에 걸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현지에 동화된 중국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다) 유럽국가의 동남아시아 진출과 빠라나칸 그룹의 의미

(답하다)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사회는 ‘중국인-동남아 현지 사회-서구 제국’이라는 삼각 구도로 작동했다. 여기서 중국인 남성과 현지인 여성의 혼혈인 중국계 빠라나칸 그룹이 중국인-동남아 현지 사회-서구 제국이라는 삼각 구도가 작용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유럽 국가의 동남아시아 진출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혼혈 그룹은 크게 유럽인과 동남아시아인 사이

의 혼혈,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 사이의 혼혈 등이 있다. 국적 혹은 종족이 다른 부모를 가진 혼혈인은 두 지역 모두에 속하면서 또 그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특징으로 인해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각종 문명의 교차로였던 동남아시아 역사 속 혼혈 그룹은 그 다양성만큼이나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해왔다.

(문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계 빠라나칸의 역할

(답하다) 빠라나칸은 동남아시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화교의 상업 네트워크와 동남아 현지 사회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과 서구 식민 세력의 현지 통치를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다. 빠라나칸은 중국인 그룹과 말레이 현지 그룹 모두에 속해 있다는 특징 때문에 두 그룹을 동시에 통치하는 서구 식민 세력에게는 매우 필요한 존재들이었다. 싱가포르, 말라카, 페낭 등 영국 식민정부가 통치하던 항구도시에서 살던 빠라나칸들은 일찍부터 영국식 교육을 받아서 영어에 능통하고 혼혈의 특성상 중국어(정확히는 푸젠 지역 방언)와 말레이어 모두 구사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문다) 동남아시아 지역 항구도시들은 어떻게 건설됐나?

(답하다) 유럽에서 온 상인들이 항구에 도시를 건설하고 무역을 행했다. 유럽인들이 지배하던 대표적인 도시는 바타비아, 말라카, 마닐라 등이다. 향신료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의 각종 천연자원 및 경작물이 유럽과 아시아 각 지역에서 인기가 많았다. 이에 16세기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후 18, 19세기에는 네덜란드, 영국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앞서 중국인, 인도인, 아랍인들이 무역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유럽인이 참여하면서 경쟁이 극심해졌다.

(문다) 이주자가 현지 여성과 결혼을 통해 얻은 것은?

(답하다) 유럽인, 중국인, 인도인, 아랍인 등은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무역을 행하면서 현지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현지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상업적 기회를 다양하게 획득할 수 있었다. 중국인 남편을 둔 현지 여성은 외국인인 남편의 신분을 보장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직접 현지 사회와 남편 사이의 상업 협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당시 동남아시아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그리 낮지 않았고, 해외 교역과 같은 상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주도하고 있었다는 배경이 작용했다. 이후 그들 사이에 발생한 혼혈 그룹이 이러한 역할을 이어받았다.

(문다)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인과 중국인의 역할 분담은?

(답하다)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에 정착한 중국인 이주자는 네덜란드나 스페인 상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고, 멕시코 등, 유럽과 서아시아산 물품, 동남아시아의 진귀한 물산(향신료 등)을 가지고 대륙으로 돌아가는 방식의 무역을 했다. 이를 위해 유럽인들은 유럽인이 장악한 도시와 도시에 공급되는 자원이 생산되는 현지 농촌에 중국인 이주자가 진출해 정착하길 원했다.

(문다) 중국인은 언제부터 동남아시아에 진출했나?

(답하다) 중국인이 동남아시아에서 상거래를 한 시기는 당·송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 말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가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명 조정의 중앙권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수천명 단위의 중국인이 상인을 중심으로 말라카, 바타비아, 마닐라 등에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는 산업혁명 영향으로 네덜란드와 영국 동인도회사가 식민지 운영 방침을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무역’ 중심에서 내륙을 점령해 생산력을 늘리는 ‘착취’로 변경함에 따라 수만명 혹은 수십만명 단위의 중국인이 건너오게 된다.

(묻다) 빠라나칸으로 대표되는 중국인 구이민자는?

(답하다) 대량 이민 이전, 중국 상인은 청 제국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수가 동남아시아 땅에서 현지화했다. 네덜란드와 영국, 스페인의 식민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서구 제국이 조성한 플랜테이션 농장 및 광산을 대리 경영하거나 고리대금업을 동족인 중국인 혹은 원주민(말레이인 및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부를 쌓아서, 이들을 징세청부업자(Tax-farmer)라 부른다. 이 시기에 동남아로 이주한 중국인은 주로 푸젠성과 광둥성의 상인이다.

(묻다) 또뚝이라 불리는 중국인 신이민자는 언제 오나?

(답하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중국인들이 광산과 플랜테이션 노동자로 수만명 또는 수십만명 단위로 이주한다. 이들을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는 또뚝(Totok)이라 불렀고, 영국령 말레이와 싱가포르, 페낭, 말라카 등지에서는 이들을 싱커(Sinker)라고 불렀다. 또뚝은 중국에서 출생한 사람들로 현지 문화에 동화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묻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해양부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 공동체 운영 방식은?

(답하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상인들은 천년이 넘는 매우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된 그들만의 관행에 따라 교역을 했다. 각 항구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인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머물다가 떠나기도 하고 정착하기도 하면서 외국인 공동체가 형성됐고, 이들은 각 공동체의 내부 규범에 따라 통제됐다. 예를 들어 이슬람 왕국이더라도 항구에서 교역하는 중국 상인, 힌두 상인, 불교 상인은 외부 활동에서는 이슬람 율법을 따라야 하지만, 각 공동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각각의 내부적 관행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 각 공동체는 내부의 장을 뽑아서 운영했다.

(묻다) 까삐탄(kapitan) 시스템은?

(답하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급증한 신이민자를 통제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공동체의 대표인 까삐탄을 임명했다. 중국인 공동체의 경우는 무조건 그 그룹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이’가 까삐탄으로서 권력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까삐탄은 주로 빠라나칸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묻다) 구이민자와 신이민자의 관계

(답하다) 빠라나칸으로 대표되는 구이민자는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언어에 능숙하며 식민정책에 깊이 관여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이민자의 고용주일 가능성이 높았다. 신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득권을 상징하는 빠라나칸·구이민 그룹과 피고용인으로서 주로 중국인 공동체에서 빈곤계층을 이루어 있던 신이민자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의 골은 20세기 신해혁명과 중일전쟁, 공산주의 열풍 등의 격변을 거치며 충돌해, 말레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화교공동체 내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묻다) 빠라나칸의 그들은?

(답하다) 중국계 혼혈 즉 빠라나칸은 근본적으로 동남아시아 현지 주민에 대한 서구 세력의 가혹한 착취를 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활동했다. 이런 활동은 20세기 해양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여 건국하는 과정에서 보였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강력한 반화교·화인 정서의 근간이 됐다.



홈트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글: 정창훈 관장 (발리에서 Uluwatu Collective 체육관 운영 중)

2021년 11월부터는 격리, 항공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내여행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발리에는 하루에 2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자카르타, 수라바야 등에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 모두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번 달은 아래의 3가지 운동을 통해 집에서 하루 약 20분가량 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요령은 AMRAP(As Many Reps As Possible) 으로써, 아래 3 운동 목록을 5분동안 계속 반복해서 수행 후 2분 휴식. 이렇게 3 세트를 하는 운동입니다.

10	Air Squat
10	Back Lunge
10	Inchworm

1. Air Squat

양 발을 어깨 넓이로 펼친 후 양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 놓은 자세가 준비 자세 임.



사진과 같이 스쿼트 자세를 취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1. 양 무릎은 양쪽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접는다.
2. 엉덩이는 무릎보다 약간 더 내려간다.
3. 무게 중심은 발 뒤꿈치로 이동한다.
4. 무릎은 발가락 선을 넘지 않는다.
5. 이렇게 내려간 후 다시 올라오면 1회가 된다.



2. Back Lunge

Back Lunge의 준비 자세는 스쿼트와 동일하고 양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준비 자세를 취한다.



먼저 왼발을 뒤로 큰 걸음 빼 주면서 전체 몸을 내린다.
무릎이 살짝 땅에 닿을 때 다시 처음 준비자세로 돌아온다.
이렇게 운동 수행을 하면 1회.



준비 자세에서 다시 오른발을 뒤로 내밀면서 Lunge 동작 수행.
무릎이 땅에 살짝 닿으면서 다시 준비 자세로 이동.
이렇게 하면 10회를 반복



3. Inchworm



Inchworm 동작은

1. 양발을 어깨 넓이로 펼친 상태가 준비자세
2. 다리를 굽히지 않고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내리면서 손이 땅에 닿으면 손을 앞으로 몇 걸음 걸으면서 팔굽혀 펴기 자세를 취한다.
3. 팔굽혀 펴기 1회를 한 후
4. 다시 시작할 때의 준비 자세로 돌아온다.
5. 이렇게 운동 수행을 하면 1회가 된다.
6. 이렇게 10회 수행

위의 3가지 동작을 5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온몸이 수영장에서 갓 나온 듯 땀이 날 것입니다.

5분 수행, 2분 휴식. 이렇게 3라운드를 하면 오늘 운동 끝.

이번 달 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ID “pac1jch” 또는 전화번호 081 338 964 258 입니다.

그럼 다음달에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촬영에 도움을 주신 원지현님께 감사드립니다.

말루쿠 제도에 얽힌 유럽 열강의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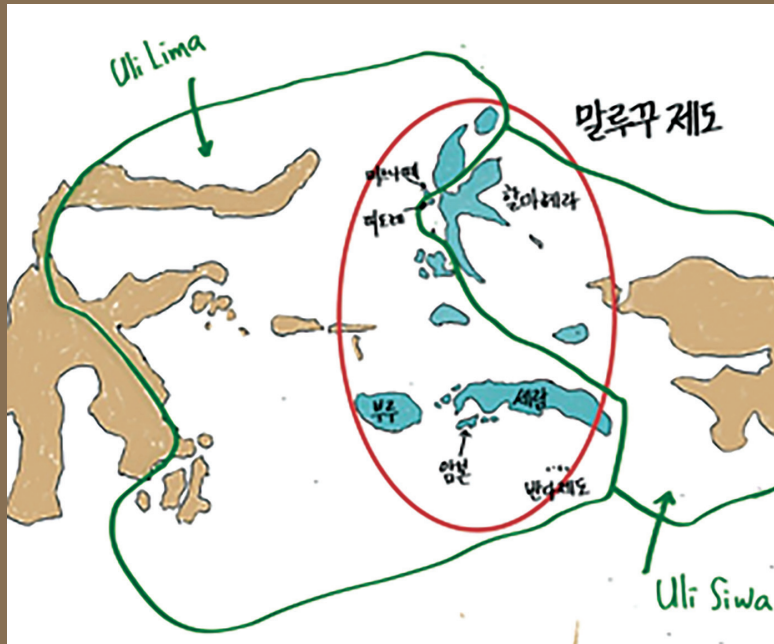
유은규 (JKIS 교사)

16세기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 소위 해상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들의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된 곳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다. 그곳은 자카르타도 아니고 수마트라섬의 어떤 지역도 아니다. 바로 자카르타에서 약 2,500km 정도 떨어진 넓은 바다 위에 뿌려져 있는 몇 개의 작은 섬이었다. 말루쿠 제도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섬들 중 몇 개의 섬에 역사적으로 매우 특이한 관심이 집중된 것은 바로 육두구와 정향이라는 향신료 때문이었다. 왜 이 시기에 유럽 사람들이 육두구와 정향을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소비하게 되었는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향신료의 이국적인 맛에 끌렸을 수도 있다. 부유하고 높은 사람들이 먹으니까 유행처럼 번졌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육두구와 정향을 유럽에 갖다 팔면 40배에서 600배까지 이익을 남겼다고 하니, 이 향신료 무역에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었을 법하다. (당시에 육두구는 이 말루쿠 제도의 남쪽에 있는 반다 제도의 몇 개 섬에서만 자라고, 정향은 말루쿠 제도 북쪽의 띠도레, 띠르나떼 등에서만 재배되었다.)

말루쿠 제도는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와 파푸아 사이에 흩어져 있는 섬들을 말한다. 주요 섬들로는 정향 재배의 중심지인 띠르나떼와 띠도레, 말루쿠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할마헤라,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암본, 세람,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육두구가 자라는 반다 제도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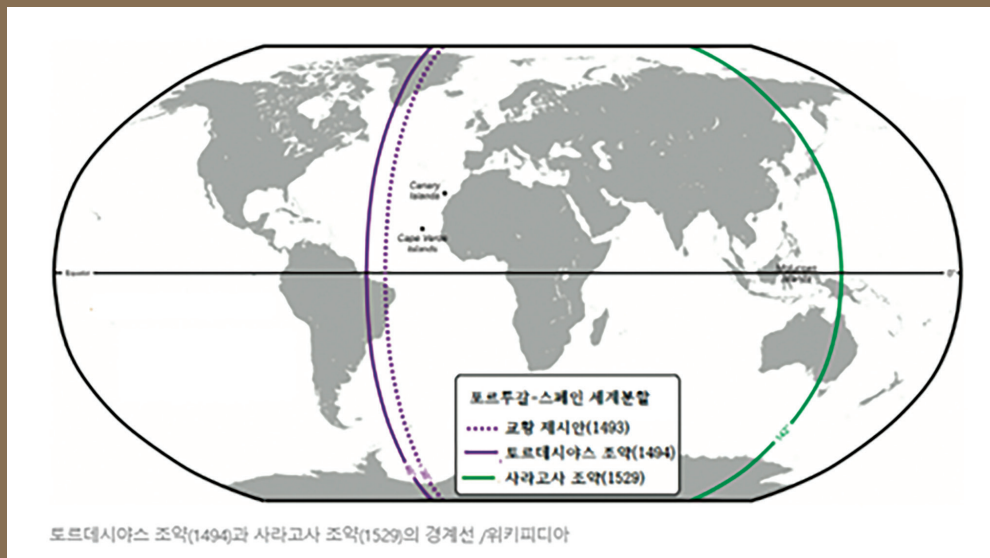
처럼 위치해 있다. 포르투갈이 말루쿠 제도에 오기 전까지 이곳은 두 개의 연합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런 연합 왕국을 울리(Uli)라고 불렀는데, 맹주는 띠르나떼와 띠도레였다. 띠르나떼 중심의 서쪽 연합을 울리 리마(Uli Lima)라고 불렀고, 띠도레 중심의 동쪽 연합을 울리 시와(Uli Siwa)라고 불렀다. 울리 리마의 영역은 멀리 바다 건너 술라웨시의 주요 무역항까지 아우르고, 울리 시와의 영역도 역시 바다 건너 파푸아까지 이른다.

제주도 면적의 1/10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두 개의 섬이 훨씬 더 큰 섬들에 대해 맹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개의 섬에서 정향이 다량 재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울리는 정치적인 성격의 연합이라기보다는 아마 무역을 위한 연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띠르나떼의 정향은 주로 동쪽의 여러 항구들에서, 띠도레의 정향은 주로 서쪽의 여러 항구들에서 판매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역의 이익은 두 섬으로 집중되었을 것이다. 남북으로 나란히 위치한 두 섬은 오랫동안 정향 무역의 주도권을 두고 대립해 왔다. 이것을 눈치 챈 유럽 여러 나라들은 띠르나떼와 띠도레 두 섬의 대립을 이용하여 말루쿠에서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이 먼저 띠르나떼와 연합을 맺어 정향 무역을 진행하자, 띠도레는 스페인 세력을 끌어 들여 세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말루쿠 제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들은 전혀 모른 상황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가 이 말루쿠 제도의 국적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 사실은 이곳에서 향료가 나는지, 아니 더 근본적으로 이런 섬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나라는 이 말루쿠 섬들의 소유권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토르데시야스 조약과 사라고사 조약이다. 토르데시야스 조약은 신항로 개척 초기에 대서양의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남극과 북극으로 지구를 둘로 쪼개어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하기로 한 조약이다. 마치 두 나라가 이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다.

토르데시야스 조약 이후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를 거쳐 인도네시아 향료 제도까지 진출하였다. 어마어마한 이익이 걸린 향신료 무역을 포르투갈이 주도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마젤란이다. 마젤란은 스페인 국왕에게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해도 말루쿠 제도까지 포르투갈보다 더 빨리 항해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마젤란의 이 주장은 근거 없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당시까지의 세계 지리 정보를 담은 세계 지도가 있었고 지구본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가면 전 지구 표면의 30%를 차지하는 태평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쨌든 마젤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

란의 함대는 계획보다 훨씬 더 지겨운 항해 끝에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을 지나 (마젤란은 필리핀의 한 섬에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말루쿠 제도가까지 와서 정향과 육두구를 구입하였다.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말루쿠 제도가 누구의 땅인가를 두고 싸우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말루쿠 제도는 토르데시야스 조약의 기준점에서 어느 반구에 속하느냐의 문제였다. 말루쿠 제도를 차지하는 나라가 향신료 무역의 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었다. 지금 같으면 지구본 하나 갖다놓고 경도만 따져 봐도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이 당시에는 아직 유럽 반대편에 대한 정교한 지리적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여기서 세계 지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다. 세계 지도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정보를 반영하는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 지도는 우리가 세계는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주장하는 것을 그려 놓은 것이다. 이 데올로기적이라는 말이다.

이 시기의 지도도 그랬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서로 말루쿠 제도를 자기 쪽의 반구에 있다고 우기면서 유명 지도 제작자들을 매수하여 협상장에 데리고 갔다. 그들이 만든 세계 지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말이다. 지도 제작자들은 말루쿠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루쿠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누가 돈을 대 주었는가가였다. 스페인에서 돈을 주면 그들은 흔쾌히 말루쿠를 스페인의 영역에 집어넣을 의지와 기술이 있었다. 그리고 협상장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지도가 조작된 것이라고 우겼다.

5년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루하게 전개되던 이 협상은 의외로 싱겁게 해결되었다. 포르투갈 국왕과 스페인 국왕이 서로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면서 두 왕실이 겹사돈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서 두 왕실 사이에 훈훈한 거래가 진행되어 말루쿠 제도를 포르투갈이 차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물론 스페인이 그 대가로 포르투갈로부터 약간의 전쟁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약이 바로 사라고사 조약이다.

토르데시야스 조약으로 그은 선도 자기들 마음대로였지만, 사라고사 조약으로 그은 선도 역시

자기들 마음대로 세계를 두 개로 나눈 것이었다. 거기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인도 사람이라는 뜻의 인디언이라고 부른 것과 같다.

참고로, 토르데시야스 조약으로 그은 선을 잘 보면 브라질 지역을 지나간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중 유일하게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다. 이것이 현재 브라질 사람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발바닥이 뜨거운 아이

성유림 (JKS 12학년)

“유독 하늘이 맑네. 그 시절처럼.”
호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내 곧 의자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가서 즐겨 마시는 SariWangi 홍차와 인도네시아 전통차인 메르모 차를 타서 누군가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오늘따라 유독 어머니가 그립네요. 잘 지내시나요.”

이 말과 함께 호준이는 아주 어릴 적 기억으로 빠져들었다. 마치 마시고 있는 메르모 차가 자신을 과거 여행으로 이끄는 것처럼.

나는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 내가 4살 때 함께 놀이공원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두 분이 돌아가셨다. 어려서 뭘 잘 몰랐던 건지, 아니면 잊고 싶은 기억이어서인지 그 당시 외롭고 쓸쓸했던 기억이 없다. 다만, 그 순간 나에게 어머니가 영웅처럼 나타나던 순간은 기억이 난다.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내 친부모님의 친구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다. 피부색이 달랐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맨발로 이른 아침부터 엄마를 쫓아다니며 다른 집의 일손을 거들었다. 점차 따가운 태양의 눈초리에 어머니와 피부색이 비슷해졌다. 어머니를 닮아가는 게 참 좋았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된 이후부터는 학교에 가는 대신 신문 배달, 빨래, 세차 등 그 나이 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뜨거워진 발바닥만큼이나 고단했지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가서 어머니께 많은 것들을 배울 생각에 종일 들떠있었다.

잠들기 전, 어머니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사적 연산, 그리고 수많은 위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황홀함에 잠겼고 웬지 모르게 가슴이 북게 타올라서 두근거리고 온몸이 따뜻해져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많았다.

“어머 세상에, 어린 애가 신발도 안 신고 대낮에 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래. 학교는 안 가나?”

“애, 재 개잖아. 4살 때 엄마, 아빠 죽은 그 애. 저기 저 아줌마가 자식처럼 키운다잖아. 꼬질꼬질하다 정말. 역시 친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자식이란.”

“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도 애가 참 착하고 영특하고 바르게 잘 자랐던데.”

“그래도 고아는 고아지. 우리 애가 저런 애한테 물들까 봐 걱정이다.”

“애, 말해 뭐하니. 당연히 걱정이지. 우리 동네 품격도 떨어진단니까.”

그래, 맞다. 우리 동네의 사람들은 우리를 아니꼽게 쳐다봤다. 어린 애라고 귀가 없는 것은 아니게 다 들리게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나를 흔들지 못했다. 나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어머니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갔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나는 어느새 13살이 되었다. 나는 13번째 생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호준아, 이리 와서 앉아 봐. 우리 호준이 케이

크 먹고 싶다고 했는데 케이크는 못 사줘서 엄마가 미안. 가게 문이 닫혀 있더라고. 대신 엄마가 우리 호준이한테 아주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상자 한 번 열어볼래?”

통장들이었다. 어머니가 번 돈을 모아 마련한 나의 대학 등록금이 들어있는. 순간 눈앞이 뿌예졌다. 입술을 꼭 물어서 참아봤지만, 왈각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나의 불을 타고 흐르는 눈물 때문에 불이 화끈거렸다. 끄끄거리며 끓는 눈물을 삼켰더니 목이 부어올라 타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믿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고 나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께 효를 다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밤낮으로 초등과정을 익힌 나는 마침내 14살에 중학교에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가 입학식을 마쳤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며 살았다.



시간이 흘러 18살이 되었을 때 햇빛만이 비출 것 같던 나의 인생에도 눈보라가 불기 시작했다.

“야! 호뽕아! 너 고아라며? 으, 징그러워서 어떻게 생판 남이랑 같이 사냐? 소름 끼친다. 야, 그렇지 않냐 수영아?”

“하하…. 그렇지. 너 엄마 그거, 네 진짜 엄마랑 아는 사이도 아니야. 알고 있었냐?”

그때다 싶었는지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나를 놀렸다. 머릿속이 온통 새까맣게 되고 끝없이 혼란스러웠다. 잠시 생각한 후에 깨달았다. 그래도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었다. 서로 말하지 않더라도 잘 느껴졌다. 어느 가족들과 다른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개의치 않고 말했다.

“그래. 어머니께서 나 말로는 표현 못 할 정도로 따뜻하게 사랑해주신다는 거, 당연히 잘 알지. 말 안 해도 곁에만 가도 어머니의 온기 덕분에 발바닥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소름 끼친 적 단 한 번도 없고 남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어.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셔.”

“하, 참. 기도 안 차서. 뻗뻗하게 고개 치켜들고 큰소리치는 것 봐. 눈은 또 왜 저렇게 뜬다니.”

“저렇게까지 흥분할 일인가? 역시 뭔가 있는 게 틀림없네.”

아이들은 내 말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 듯이 저희끼리 마저 수군거렸다.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말하고 나니 수많은 감정이 막을 수 없이 밀려 들어와서 나를 덮어버렸다. 결국, 그 날 학교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다. 깊은 밤 불도 없는 캄캄한 숲 속에서 굳세어 보이는 나무에 기대어 생각했다. 나도 이 숲처럼 울창하게 이 나무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때 마음을 먹었다. 나의 어머니가 어느 분이든 간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내가 반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한 대로라고. 그때의 나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차가운 아픔을 알지 못했다. 그저 잠시 잠잠해진 폭풍이 다시 휘몰아칠 것만 같은 예감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도 어머니께서 활짝 웃으면서 대문을 열어 주셨다.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는 듯했다. 포근하고도 따뜻한 어머니 냄새에 하염없이 안기고 싶었다. 그래서 열린 문 앞에 신발을 벗고 먼저 집안으로 들어가는 어머니에게 어릴 적의 나처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가서 품에 와락 안겼다. 웬지 그날따라 내가 이럴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토닥여 주시던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이상했다. 당황스러웠다. 정적이 흘렀다. 한참 뒤에 어머니께서 입을 떼셨다.

“호준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호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먹먹해져 있었다. 나는 몸이 떨려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들어주겠니?”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병원에 좀 다녀왔어. 요즈음 숨이 좀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싶었어. 그러다가 요 며칠 동안에는 기침이 너무 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호준아…… 엄마가, 엄마가 우리 호준이랑 같이 이렇게 있을 시간이 3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데?”

어머니는 애써 입 꼬리를 떨며 웃어 보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볼에 눈물이, 아주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에 아주 크고 뜨거운 석탄이 턱하고 가로막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하기만 한 줄 알았던 어머니였다.

“그리고 호준아. 엄마가 옛날부터 하나 말할 게 있었는데, 이제 말하게 되었네. 너무 늦은 것 같아 미안하다, 호준아. 엄마는 너희 부모님을 몰라.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냥, 사고 났을 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야. 119 부르려고 차 가까이 다가가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 거였는데, 우리 호준이 잘 부탁한다고 너희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 사랑한다고, 아껴달라고. 나를 최선을 다 해왔는데 아무래도 부모의 사랑에 견주어 본다면 많이 부족하겠지? 우리 남은 시간 더욱 행복하게 보낼래? 엄마는 치료받으면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우리 호준이 옆에서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데…… 괜찮을까, 우리 아들?”

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잊지 못할 거라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마음속에서 증오나 배신감이 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존경스러웠고 덕분에 삶을 선물 받은 것 같아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했다. 지쳐 잠들면서 나는 결심했다. 꼭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위인들의 이야기와 본인의 행동으로 한 평생 내내 보여준 봉사, 사랑, 배려를 나도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홀로 낯익은 그들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그들에게 나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누구보다 빛나던 나의 어머니는 하늘의 별이 되었다. 슬퍼서 한동안 나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힘들 때면 이제는 여기에 없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괴로운 적도 많았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축 처져서 무기력하게 일상을 보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아직도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며 살아 계신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나의 곁에서 언제나 묵묵히 힘이 되어주셨다. 그리하여 나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내 삶 속 곳곳에 어머니가 녹아있었기에 나는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누구보다 치열한 20대를 보낸 나는 본격적으로 꿈에 그리던 유엔난민기구 소속으로 일하기 위해 더 뜨겁게 30대의 초·중반을 보냈다. 그렇게 나는 꿈에 그리던 이곳에 있다. 인도네시아의 따사로운 햇볕 아래 따뜻해진 흙을 온 발로 느끼며 어린 시절부터 나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는 뜨거운 발바닥으로 서 있다. 아이들의 눈부신 미소를 보면 나의 마음마저 밝아지는 듯하고 사랑과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듯하다. 행복하다. 눈물이 날 듯 행복해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Jun, come on! Aren’ t you done with your tea? Ayo, berangkat!”



창밖에서 나의 동료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하루도 어머니께서 주신 따스함을 세상에 나누며 뜨겁게 살아가자고 다짐을 한다. 오래 아침마다 해오던 나만의 의식 같은 다짐이었으나, 오랜만에 예전의 일이 많이 떠올라 유독 느낌이 싱숭생숭했다.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이 따스함이 어머니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아닐까?’

오늘도 아이들과 적도의 나라에서 맨발로 뜨겁게 뛰어다닌다.



잘란 잘란 동네 한 바퀴

김가온 (JKKS 6)

우리집 정원에 우뚝 서 있는 기다란 선인장
뜨거운 해를 피해 선인장에 몸을 숨긴 작은 도마뱀
초록 도마뱀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는 길고양이
한껏 몸을 낮춘 길고양이를 멈춰 지켜보는 나
잘란 잘란 동네 한 바퀴

앞집 큰 그늘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붉은 머리카락 람부탄
옆집 커다란 나뭇잎 거대하고 붉은 꽃에서 태어난 노란 바나나
끝집 초록 피부 주황 속살 까맣고 둥근 씨가 다닥다닥 파파야
다시 돌아오는 길 뒷집 목직하고 탐스럽게 늘어진 침 꿀깍 망고
잘란 잘란 동네 한 바퀴

우산에 구멍 날라 빗소리가 우박 소리 같은 우기
나무 그림자를 찾아라 땅도 하늘도 이글이글 건기
맑은 날이면 저 멀리 산도 또렷하게 보이는 선선한 아침
해가 떠난 자리를 그리워하며 시선을 빼앗는 노을빛 저녁
잘란 잘란 동네 한 바퀴

마주치는 눈빛 따뜻한 웃음 반가운 인사
나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내가 뛰면 같이 뛰고
그러다 신이 나서 빙글빙글 함께 춤추는 나무, 하늘, 달, 별
맨날 똑같은 것 같아도 매일매일 다른 풍경
잘란 잘란 동네 한 바퀴

<열두 달의 식물칼럼> 첫 번째 이야기

삶의 속도

* 나무에서 기질을 배우고 뿌리에서 가치를 찾고 잎에서 변화를 배우는 삶.
그런 자연과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한 소소한 칼럼을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씩 들려 드릴 예정입니다. 모르면 누구에게나 잡초일 뿐이지만 알고 나면 아
름다운 꽃이고, 쓸모 있는 약이고, 모두가 소중한 생명이지요.
식물의 12가지 감동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글: 권영경

아디안툼 새싹

아침엔 해가 반짝 나서 이불 빨래를 잔뜩 널어 놔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한바탕 비가 쏟아진다. 우기가 오는 모양이다. 널어 둔 빨래에겐 미안하지만 습한 기운 좋아하는 식물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라 몇 달을 꿈작 앓던 몇몇 베란다 식물들이 손바닥만큼 자랐다.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장점은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희망과 감동이다. 그들은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재주를 가졌고, 인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이동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도 치열하게 인내하고 변신을 거듭해 이 지구에 끝까지 살아남았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적도에서도,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꺾어보지도 못했을 히말라야에서도, 산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저 태평양 바다 깊숙한 곳에도 그들은 존재한다.

식물의 삶은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치열하고 그래서 감동적이다.

가끔 나는 식물들의 자람의 순간을 타임랩스(정상속도보다 빨리 돌려서 보여주는 기법의 동영상촬영)로 찍어 보곤 한다. 그저 한 자리에 자리 하나 차지하고 앉아 꿈작 앓는 것처럼 보이는 식물들이 매초마다 해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얇은 가지를 씹없이 흔들며, 마치 춤을 추듯 하늘을 향해 잎을 뻗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잃었던 삶의 방향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 고개를 돌리기 때문이다.

모소대나무

moso bamboo, *Phyllostachys edulis*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대나무로 이들은 씨앗을 뿌리고 난 첫 4년간 겨우 3센티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러다 5년차에 접어들면 하루 30센티씩 자라 6주 동안 무려 15미터까지 성장해 순식간에 울창한 대나무 숲을 만들어 버린다. 처음 4년 동안은 1년에 1센티도 자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긴 기다림의 끝에 엄청난 성장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런 대나무를 심었냐며 농부를 한심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나무는 4년이란 시간 동안 뿌리 내리는 일에 온 힘을 쏟아 붓는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단단히 내린 뿌리의 힘으로 순식간에 다른 대나무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튼튼하고 굵은 대를 하늘 위로 빠르고 거침없이 쭉쭉 뻗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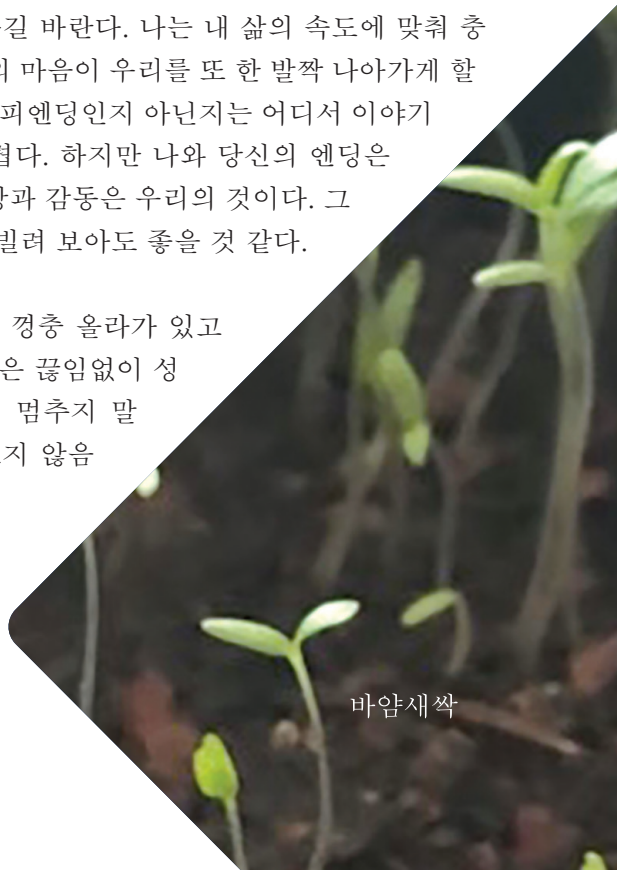
식물은 저마다의 시간을 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건 수년을 뿌리 내리는 데 집중하고 어떤 건 잎 하나 내기 위해 일 년을 같은 상태로 내실을 다진다. 어떤 꽃은 잎이 나기도 전에 피고 어떤 꽃은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봉우리를 뚫는다. **그들은 그저 우리와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을 뿐 끊임없이 안과 밖으로 쉼 없이 성장하고 있다.** 아무도 느리게 자라는 나무를 향해 왜 다른 나무만큼 빠르게 자라지 못하냐고 다그칠 수 없다. 다른 나무야 어찌되었든 양껏 에너지를 끌어 모아 자기만의 속도에 맞춰 뿌리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 올려 광합성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식물들의 삶이다.

코로나로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이 지속 될수록 우리의 피로는 높아지고 의욕은 점점 떨어진다. 하지만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과정에 있지 않은가. 그것이 엔딩의 순간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발전이 없다고 두려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직 우리는 과정 안에 있고 뿌리가 썩지 않았다면 가지마다 새로운 잎이 다시 돋아 날 것이다. 혹 지금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집중 하고 있다면 그들의 평가에 나를 끼워 맞추는 대신 내 마음 먼저 보듬어 주길 바란다. 나는 내 삶의 속도에 맞춰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안아주면 어떨까? 이런 포옹의 마음이 우리를 또 한 발짝 나아가게 할 것이다. 미국의 영화감독 오손 웰즈(Orson Welles)는 “해피엔딩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이야기를 끊느냐에 달렸다” 라고 했다. 순간순간 삶은 지치고 어렵다. 하지만 나와 당신의 엔딩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긴다면 분명 희망과 감동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 그 성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식물의 지혜를 조금 빌려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세상 모든 것들이 멈춰있다 생각했는데 아이의 교복바지는 경충 올라가 있고 내 머리카락은 또 한참 길었다. 분명한건, 오늘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각자의 삶의 속도로 그저 멈추지 말고 꾸준히 오늘을 살자. 인간의 일생이 식물의 일생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 어린 새싹도, 다 자란 꽃도
매 순간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항상 밝은 곳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바야새싹





《한인니문화연구원》과 《한-인니산림협력센터》가 공동주최한 제11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제1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문학상 당선작 발표

이영미 (한인니문화연구원 특임연구원)

- 제11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일반부 대상에 권영경 씨의 ‘맹그로브 나무의 삶’, 학생부 대상에 성유림 학생의 ‘발바닥이 뜨거운 아이’
- 올해 신설된 제1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초등부 대상에 한예성 학생의 ‘향긋한 소나무 아파트’

《한인니문화연구원》은 제11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과 제1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문학상 수상자를 결정하여 발표했다. 2010년 첫 씨앗을 뿌린 뒤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관심 속에서 언어 한 줌으로 키운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은 올해 11회를 맞이한다. 특히 올해는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과 생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개소 10주년을 맞이한 《한-인니산림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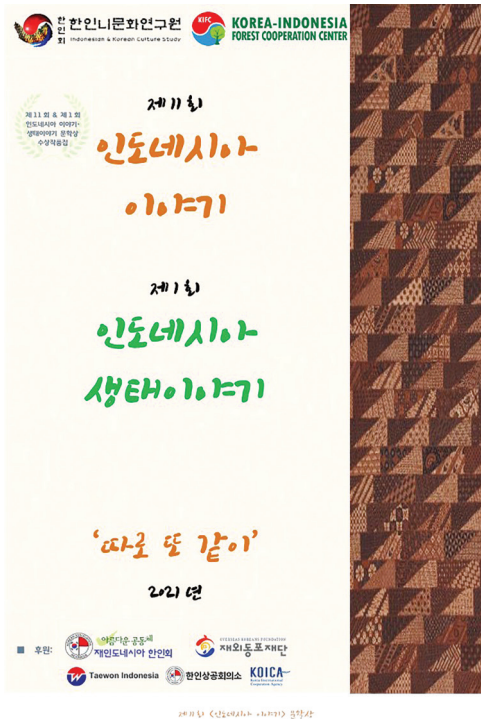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임업 및 산림경영 분야의 협력 증진에 앞장서는 《한-인니산림협력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에 초등부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문학상>을 신설하였다.

공모 부문은 △소설 △수필 △시/시조 △동화/동시로 팬데믹 여파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2주 연장한 것과 무색하게 전년도보다 많은 편수가 접수되었다. 해외 거주, 나무, 숲, 팬데믹 등 ‘인도네시아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만큼 인간과 환경이 주고받는 영향과 이 과정을 통해 깨달은 삶의 의미를 얼마나 수려하게 직조해냈느냐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전문 작가들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심사를 통해 일반부 16편, 학생부 10편, 초등부 9편이 최종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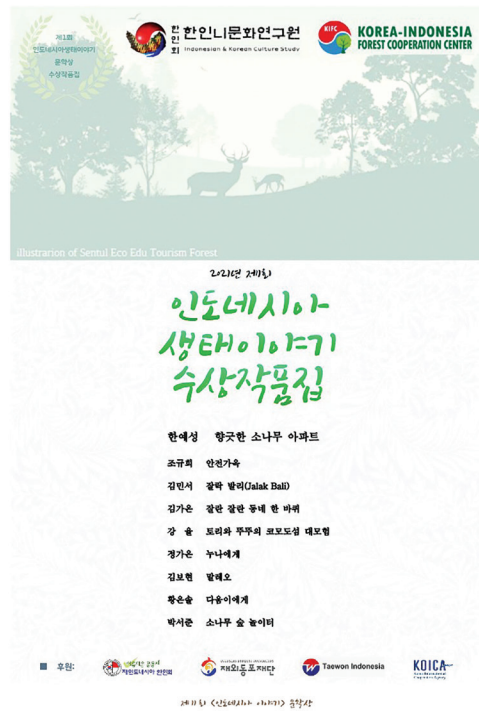
제11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일반부 대상에는 권영경(주부·전 환경조경연구원, 자카르타)의 수필 ‘맹그로브 나무의 삶(Kehidupan Pohon Mangrove)’, 최우수상에는 오선희(주부, 발리)의 수필 ‘아직도 나는 배우고 있다(Saya Masih Belajar)’, 고찬유(한국일보자카르타특파원, 자카르타)의 수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자(Ingatlah Nama Mereka)’, 윤세귀(프리랜서, 말랑)의 시 ‘회사를 그만둔 날(Hari Saya Berhenti Bekerja)’, 유호종(발리한글학교장, 발리)의 수필 ‘시는 힘이 있다(Puisi Memiliki Kekuatan)’, 김선훈(국어과 교사, 자카르타)의 ‘미낙 까유 뿌띠(Minyak kayu putih)’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학생부 대상에는 성유림(JIKS, 12학년)의 소설 ‘발바닥이 뜨거운 아이(Anak Bertelapak Kaki Panas)’, 최우수상에는 김채희(JIS, 10학년)의 수필 ‘잎사귀(Daun)’, 이하늘(GMIS, 12학년)의 수필 ‘고통 로용(Gotong Royong)’, 박승현(ACS, 7학년)의 ‘나의 우편배달부(Tukang Pos Saya)’가 선정되었다.

올해 처음 신설되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1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에는 50여 편이 넘는 작품들이 접수되었다. 대상은 한예성(ACS Jakarta, 5학년)의 동시 ‘향긋한 소나무 아파트’



제11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수상작품집



제1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문학상 수상작품집

트’와 ‘보고르 센틀 생태교육숲’, 최우수상에는 조규희(Binus School Simprug, 6학년)의 동화 ‘안전 가옥’, 김민서(JIKS, 6학년)의 수필 ‘잘락 발리(Jalak Bali)’, 김가온(JIKS, 6학년)의 동시 ‘잘란 잘란 동네 한 바퀴’가 차지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심사위원과 진행요원을 포함한 최소의 인원만 모여 진행된 시상식 영상을 촬영했다. 《한인니문화연구원》사공경 원장의 발간사 및 기념사, 축사가 포함된 수상작품은 웹진으로 제작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마음 둘 곳 찾아 뿌리를 내리면 그곳이 어디든 내 집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 사회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돌아설 것처럼 보였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신종감염병이 검은 안개처럼 스멀스멀 퍼져나가 인간의 마음까지 뒤덮는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우려였다. 제11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과 이번에 신설된 제1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문학상

에 보내온 작품들은 하나같이 ‘오늘의 기쁨’과 ‘내일의 희망’을 노래한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란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얼마나 남았을지 모를 인류에게 남은 시간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상이 반영된 소설에는 ‘걸음이 느린 영혼’을 기다릴 줄 아는 이의 마음이 활자로 앉혔다. 네 살 때 길에서 사고로 부모를 잃은 한국인 아이를 아무런 대가 없이 키워 준 인도네시아 어머니는 알고 보니 고아가 된 아이와 어떤 조그만 인연도 없는 분이였다는 설정의 성장소설과 ‘마음씨 착한 동물들에게는 무료 분양’이라는 따뜻한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난 초등학생의 동시까지, 모두 희망을 얘기한다.

《한-인니산림협력센터》이성길 센터장의 말처럼 “기억을 담고, 감정을 비추며, 사상을 조율하고, 진리를 모색하면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마음의 생태학’이 가능”해진다.

— 이영미 아동문학가(제1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문학상 총괄 및 심사)

격리의 기억

이병규 /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yakm02@hotmail.com



출국 날 아침, 공항버스 안의 나는 항상 불안과 초조로 가득하다. 온갖 출국에 관련된 서류들을 잘 챙겼는지 빠뜨린 물품은 없는지 굳게 입을 다문 캐리어를 열어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픈 욕구와 이 버스 안에서 저 큰 캐리어를 열었을 때 벌어진 몹시 불편한 상황의 경계에서 머릿속에서는 몇 번을 캐리어 잠금 장치를 풀었다 열었다 하곤 한다. 이미 별도 개인 기내 가방은 10분에 한번 씩 여권과 지갑이 잘 있는지 접종증명서와 PCR 결과지를 확인했고 어디 갈 것도 아닌 이것들의 안위를 확인한다. 어쩌면 가장 평화로울 수 있는 이 시간을 나는 부질없는 반복으로 망치고 있는 중이다.

어느 새 공항버스는 올림픽 대로로 접어들었다. 일요일의 여유로운 차량의 움직임에 맞춰 한강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흐르고 동서로 길게 뻗은 강변북로 너머 빌딩숲은 언제 또 오겠냐며 아쉬움에 나를 배웅한다. 예기치 못한 역병의 창궐로 1년 반 만에 온 한국인데, 때마침 터진 델타 변이로 지인들과의 조우는 다 미루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만 후다닥 처리하고 급하게 다시 출국을 해야 했다. 직장동료나 친구들 만나는 행위 하나하나가 지금은 민폐였고 특히나 5만 명 확진자가 넘어가는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온 나는 반가운 지인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한 덩어리로 보였을 것이기에...

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데스크에서 수하물을 맡기고 학창 시절 기말고사 성적표를 기다리던 모양새로 접종 증명서와 PCR 검사 결과지 확인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출국장 게이트를 지난다. 역병의 시대에도 공항은 사람이 조금 줄어든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런 시절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오고 가고 있다. 7시간이라는 비행을 마치고 어둑해진 자카르타가 나를 맞는다. 공항에서 일련의 서류 작업을 끝내고 1시간여를 달려 까라왕 지역에 예약해 둔 숙소로 도착한 이후 짧은 체크인 과정을 거쳐 드디어 숙소로 도착했다. 드디어 7박 8일의 격리를 시작한다. 자카르타에서 격리의 시작은 호텔 체크인이 아니라 PCR Test로부터 시작한다. 흰색 방역복을 입은 마치 바이오 해저드 게임에서 보는 듯한 무시무시한 복장을 한 의료진들이 내 방으로 쳐들어오면 나는 죄를 지어도 아주 크게 지은 대역 죄인 마냥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나의 코와 목을 내줘야 한다. 하얏고 기다란 알뜰게도 얇은 막대에 걸으려는 뽀송



뽕송 해 보이지만 내 몸 속 어딘가를 헤집고 다니면 몹시도 아플 것 같은 숨뭉치를 끝에 메 단 검사 도구로 목적지를 안내할 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고글을 쓴 의료진이 나의 코와 목 구멍을 이리저리 뒤집는다. 재채기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재채기를 하면 또 죽을 것 같은 그 경계의 아득함에 뇌가 정지할 것을 때가 와서야 겨우 작업은 끝이 나고 나의 코와 목은 해방을 맞는다.



격리 1일차, 6시 반에 아침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호텔 직원의 문 두드리는 소리로 눈을 뜬다. 어제 밤 꽤 늦은 시간의 체크인과 PCR 검사 그리고 짐 정리로 늦게 잠든 탓에 시차를 무시할 정도로 현지 시간에 적응했다. 이른 조식을 먹고 커피를 열고 밖을 바라보니 호텔 바로 앞 도로 위로 일상을 시작하는 차량들과 사람들이 지나간다. 평화롭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우선 유튜브를 켜고 평소 관심 있던 영화 줄거리를 요약해주는 콘텐츠 시청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밥도 갖다 주고 빨래도 알아서 해주고.” 12시에 칼같이 갖다 주는 점심을 먹고 또 하는 등 마는 등 형식적인 홈트레이닝을 끝내고 또침대에 누워서 그 동안 못 봤던 책을 꺼내서 읽고 최근 뉴스를 보면 시간을 보낸다. 인도네시아의 계절은 한국과 달리 항상 여름이고 변화가 없

다. 시간의 흐름은 우기인가 건기인가 정도로만 구분이 된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풍경으로 하루가 지나갔음을 느끼고 차량의 경적 소리와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시간의 흐름을 느낀다. 소일거리로 격리의 첫날은 별 문제 없이 아주 느리지만 지겹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다. 하루의 격리는 생각보다 편안함으로 무료함이 덜 했고 평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만의 공간에서 맘껏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못한다는 아주 약한 제약을 빼고는.

격리 2일차, 같은 시간에 도시락이 배달이 오고 어제 늦게까지 보다가 잠든 영상을 다시 틀고 침대에 눕는다. 책을 조금 읽다가 홈트레이닝을 짧게 하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샤워를 한다. 밖에서 차량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어나고 나는 책을 읽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시 영상을 보다가 평소 쳐다보지 않았던 모바일 게임을 몇 개 골라설치하고 해본다. 어제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점심 도시락이 도착했고 맛있게 먹은 후 다시 책을 좀 보다가 모바일 게임을 한다. 책을 다시 꺼내서 읽다가 유튜브를 틀고 또 다른 영상을 찾았다.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의 콘텐츠를 서핑하고 애들 온라인 수업이 끝날 때쯤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한다. ‘음... 이거 좀 이상한데...’ 저녁밥을 먹고 일찍 잠이 들었다.

격리 3일차, 새벽 4시 기도소리와 함께 깼다. 격리의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다시 잠들지 못했다. 밥은 2시간 뒤에나 온다. 캐리어를 열어 짐 정리를 다시 해보았다. 10분도 지나지 않았다. 책을 읽기에는 눈이 아팠고 휴대폰 스피커를 크게 켜고한국 라디오를 들어봤다. 평소 즐겨 들던 라디오 DJ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창밖은 아직 어두운데 웬지 복도 양끝으로 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가 볼까하는 유혹이 머리에 맴돈다. 다행히 아침밥이 도착했다. 밥이라도 먹으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천천히 먹는데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는 당최 적응이 안 된다. 점심이 빨리 와야 이 공허함이 사라질 것 같다. 공연히 리셉션에 전화해서 수건을 갈아 달라고 요청하고 세탁물 받으러 온 직원이 반갑기 그지없다. 이렇게 해도 아직 9시가 채 되지 않았음에 한번 좌절을 한다. 우리에게 갇힌 짐승들이 이럴까? 식민시절 숨어 지내야 했던 독립 운동가들이 이랬을까? 점점 메말라가고 밥에만 집중하고 재미란 것이 없어지고 두통이 오고 창밖을 멍하니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온몸이 벌레가 돌아다니는 듯 했다. 처음에는 무위도식하며 하루라는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사육의 삶이 어찌면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흘을 채우지 못하고 방에서 나와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나홀, 닷새, 엿새 그리고 이레가 되는 날, 마지막 PCR을 위해 흰색 방역복의 의료진들이 다시 나타났다. 7일 만에 보는 사람들이 반가웠다. 코와 목을 유린하던 하얀 솜뭉치도 반갑고, 고글도 오늘은 반짝 반짝 윤이나 보였다. 의료진들에게는 괜히 반갑게 “Apa Kabar!”로 인사를 날려줬다.



하지만, 그 시간은 매우 짧고 순간의 검사 시간이 끝나고 그 방에 나는 또 덩그러니 버려졌다. 점심이 와서 점심을 먹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니 괜히 눈물이 난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숨어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무료함을 버텼을까? 지금 나와 같이 갇혀있는 세상의 수많은 소와 닭과 돼지들과 그 외 수많은 가축들은 어떻게 이 억압과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일까? 지리멸렬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격리의 시간이 끝나는 여드레째 아침, 어제 밤에 이미 체크아웃을 위한 짐은 다 싸 났고, 새벽부터 리셉션에 체크아웃 시간을 확인하고 PCR 결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상 즐거운 사람이 나왔다. 마침내 나는 기나긴 어둠의 시간 끝에 세상에 토해내졌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격리의 기억을 뒤로 한 채 집으로 향하는 차에 냉큼 올랐다.

“Pak! Ayo Pulang~”



동화에서 튀어 나온
이 구역의 달콤한 몬스터들



박승우 (까망, ACS, G2)



임나현 (뽀독인다, JIS, G4)



김아린 (땅그랑, SWA, G2)



한예성 (버카시, ACS, G5)

‘해치지않아요’

#당떨어져요

#올해는우리라도참자

#비대면괴물

#엄마빨리찍어요





음식물쓰레기 효율적으로 버리자

글 : 조웅희 (학생기자, JIS 11)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 재배되고 키우고, 포획하는 식품의 약 30%가 손실되거나 버려진다. 이렇게 버려지는 식품은 환경오염 일으키고,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식품을 폐기 하지 말아야 할 재정적, 환경적, 윤리적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 재배한 전체 식품의 약 3분의 1이 매년 손실되거나 버려진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반려동물이나 가축사료와 같이 다른 용도를 위해 재배된 식량작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품폐기물에는 농장쓰레기, 식품제조공장 쓰레기, 슈퍼마켓 쓰레기, 음식점 쓰레기 등 다양하다.

한국의 경우, 일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약 1만 5000여 톤, 한 사람이 매일 300그램의 음식 또는 식재료를 버리는 양이다. 물론 장보기 전 계획을 세우거나 자주 사는 등 여러 노력들이 실천되고 있지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식품 제조 공정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품 제조 공정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크게 업사이클링과 유통기한 표시 변경이 있다.

앞에서 설명했던 식품제조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는 해결책 중에 한 가지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유통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식품가공 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을 사용하여 소비자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 노매드 트레이딩 컴퍼니의 커피 체리를 우려 만든 ‘카스카라’와 음료. 커피가루를 이용한 이탈리아 레코핑기의 ‘양송이버섯’ 재배 캐나다 위즈몽키의 ‘커피차’ 등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아

쿠아 보타니칼’은 과일과 채소의 즙을 짜서 농축할 때 나오는 수분을 모으고 걸러서 병에 넣은 다음 고급생수로 판매한다. 이러한 푸드 업사이클은 음식물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활용성을 더해 가치를 높이는 일을 뜻한다. 단순히 음식물폐기를 재사용하는 것이 아닌 거기에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 친환경 제품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식혜박을 활용해 에너지바로 만든 리하베스트가 있다. 기존 식혜박은 제조 공정에서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서 폐기된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만든 에너지바는 보통 에너지바보다 단백질이 1.3배, 식이섬유가 무려 10배 등, 인체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방향의 푸드 업사이클 회사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리하베스트>

그에 반해, 국내에서는 푸드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식품날짜 표시개선을 통해 식품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은 포장식품이 신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비기한 (use by),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사용기한 (enjoy by), 유통기한 (sell by), 진열기한 (display until) 같은 표식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유통기한을 쓴다. 이러한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많은 정부와 학계의 논의가 있어왔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이 둘의 차이는 식품 섭취 기한에서 다르다는 점이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식품 섭취 안전기한의 60~70% 정도 수준에서 표기가 되어있는 반면, 소비 기한은 유통기한처럼 표시된 기간 동안 보관한 뒤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기한을 말한다. 즉,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섭취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는 식품들의 비용이 한 해 평균 1조5400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식품의 날짜 표기를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바꾸게 된다면 섭취 기간이 늘어 음식물 폐기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정부와 학계는 논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이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 으로 바뀌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을 ‘소비기한’ 으로 바꾸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시중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 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기한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잘 보관했을 때 액상 커피와 같은 유음료는 유통기한보다 30일, 슬라이스 치즈는 70일, 달걀은 25일, 두부는 90일, 식빵은 20일, 생면은 50일, 냉동만두는 25일, 우

유는 50일은 더 소비해도 된다고 한다.

위와 같은 푸드 업사이클링과 소비기한 표시를 통해서 식품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스스로는 음식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개인이 경각심과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면서 현세대의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식재료의 선택, 조리, 소비, 재활용 활동을 합리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의 식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음식물 쓰레기 전쟁 (Why waste food?)



노사분쟁 해결(1)

손해배상 청구 혹은 권리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형사사건은 수사에서부터 선고까지 모든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불공정한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성문법 위주인 대륙법 체도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절차법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본질을 규정하는 내용법을 잘 알고 있더라도 절차법을 잘 몰라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지 상황이다. 노사분쟁 해결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내용법인 노동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3호 및 노동조합에 관한 2000년 법률 제21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이듯이, 절차법인 산업관계(노사)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 2004년 제2호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필수이다. 노동에 관한 부서는 중앙정부에 노동부(Kementerian Ketenagakerjaan/Kemenaker), 주청에 지방청(Kantor Wilayah/Kanwil), 시/군/구에 노동국(Dinas Tenaga Kerja/Disnaker)이 있으며, 사법부에 노동법원(Pengadilan Hubungan Industrial/PHI)가 있다. 노동법원은 각 주에 한 곳씩 설립되어 있다. 노사분쟁을 처리에 관하여 방법과 절차를 설명한다.

1. 노동법의 원칙

1.1. 민사계약은 민법 제1338조에 규정한 i). 적법하게 체결한 모든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법이다. ii). 체결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동의 없이 혹은 법에 정해진 사유 이외의 사유로 해약이 불가하며, 계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해약이 가능하다. iii). 계약 당사자는 계약된 내용을 성실하게 (dengan itikad baik/in good faith) 이행하여

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계약은 민사계약이지만 민법 제1338조가 적용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노동법의 원칙이 적용된다.

2.2. 사용자(회사)와 근로자(직원)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근거는 i). 회사와 직원이 직접 체결한 고용계약서(Perjanjian Kerja), ii). 회사에서 만들어서 직원 대표의 동의를 얻고 정부의 승인을 얻은 사규(Peraturan Perusahaan), iii).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근로계약서(Perjanjian Kerja Bersama), iv). 노동법(Peraturan Perundang-undangan Ketenagakerjaan)이 있으며, 위 네 종류 법적근거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직원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근거가 다른 근거에 우선한다.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 임금을 고용계약서에 시간당 얼마를 준다고 약정했을 때 이 약정한 시간외근무 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150%, 200%, 300%, 400%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에서 약정한 시간외근무 임금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시간외근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2. 국가의 근로자 보호

민사계약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면 근로자는 취직할 때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용자가 준비한 고용계약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많으며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강제성이 있는 공법인 노동법과 노동소송법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을 통한 국가의 관여 범위는 논란의 대상이다. 해고 허가제와 무기한부 고용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제한적인 조

건으로 기한부 고용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근로자를 과잉보호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며 과잉보호는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요인 중에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3. 노동 소송법의 원천

노사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 절차법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 3.1. 산업관계(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2004년 법률 제2호
- 3.2. 노동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3호
- 3.3. 노동조합에 관한 2000년 법률 제21호
- 3.4. 근로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1992년 법률 제3호
- 3.5.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법률 제11호
- 3.6. 민사 소송법
- 3.7. 형사 소송법
- 3.8. 상기 모법에 근거하여 발표된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령 등 제 시행규칙

4. 노사 분쟁의 구분

노사 분쟁의 발생이유는 노사 간에 특정 사안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이며, 노동 소송법에서는 노사분쟁을 권리에 관한 분쟁, 이권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 및 노동조합 간의 분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5. 권리에 관한 분쟁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사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규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한 노사분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주간 계속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자진사퇴한 것

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하였으나, 근로자가 제 3주 첫날에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계속 근무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은 분쟁이다. 이는 관계 법조항을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5일간 계속 무단결근하면 사용자가 즉시 2회에 걸쳐 근로자를 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무단결근을 했으면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적법하나, 사용자가 2회에 걸쳐 근로자를 호출하지 않았으면 근로자의 주장이 적법하다.

6. 이권에 관한 분쟁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노사 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규에 보너스 혹은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사업이 잘 돼서 흑자가 많이 났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보너스 혹은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이다.

7.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은 통상 고용관계 종결 방법이 적법한지 불법한지 여부와 고용관계 종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고금 등의 액수에 대한 분쟁이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해고는 노동법에서 해고는 원인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노동조합 간의 분쟁

한 회사 내에 복수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 간에 발생한 분쟁을 의미한다.

(다음 호에 계속)

SAVE THE CAT!

‘영화 초반부에 주인공이 나무에 올라간 고양이를 구해준다’

- 병역법 제3조

글: 홍석영 편집장



성공하는 시나리오를 쓰는 불변의 법칙 중 첫 번째가 ‘고양이를 구하라’이다. 인물의 호감을 높이는 이야기 설정 중 하나이다.

그 주인공이 굶주린 고양이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사료를 공수해줬건, 고생을 감수하고 위험에 처한 고양이를 구했던 간에 무엇인가 돌본다는 것은 크건 작건 희생이 따른다. 나라면 과연 어땠을까? 지나쳐버리거나 주저했을 일을 해내는 ‘멋짐’은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약자를 돌아보는 마음 씀에 점수를 주게 된다. 게다가 구원은 대부분 성스럽다.

가끔 사람은 상황이 주어지면 알 수 없는 힘을 내기도 한다. 물론. 오바하는 행동의 근원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큰 탓도 있을 거다.

정작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관계의 거리에 따라 인상을 찌푸리고, ‘제발 오지랴 떨지 말라!’고 소리를 칠 수도 있다.

내게도 길고양이가 ‘새끼다’, ‘말랐다’, ‘새끼를 품었다’ 하면서 집에 들어서 집고양이를 만드는 친구가 있다. 난 그 친구가 내 가족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한국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도 기훈이란 인물이 그렇다. 두 사람씩 편을 먹고 하는 구슬따기 놀이에서 깎두기로 살아남을 작심을 한 노인에게 ‘한편이 되자’고 굳이 노인을 챙기는 주인공의 오바를 당할 재간이 없다. 게다가 엉망인 자기 상황을 뒤로 한 채 남을 챙기는 그런 인물이 생존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된다. “함께 살자!”는 정신을 끝내 지키려고 애쓰는 인물이 끝내 성공하는... 그건 드라마 얘기이지만.

인생은 길게 보면 돌봄을 받거나 누군가를 돌보거나 하면서 시간이 흐른다.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이십대에는 자기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어쩌면 그 시간과 비용을 오롯이 나에게만 쓰고 싶어서 가족을 만들지 않기도 한다. 자식에 대한 의무, 노부모에 대한 의무, 가정 경제에 대한 의무 등 공동의 의무에 피로감을 갖는 걸로 해석한다. 친구들은 내게 퇴직하고 집에 있게 되더라도 자식들에게 손주 봐준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육아 전담은 ‘너의 시간과 건강을 앗아간다’고. 누구도 손주 보는 할머니를 멋지다고 하지 않았다. 이건 현실의 얘기이다.

코로나로 인한 강제 집콕으로 각자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정거리 안의 사람을 불편해하며 옆 사람과는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먼 거리를 둔 사람하고는 뭐하는 지 궁금해 한다. 스마트 폰과 카톡을 믿고 모두가 이별을 쉽게 한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연락이 닿으니까.

꽃을 보고 감탄하면 늙은 거라 했다. 봄에는 꽃이 피니 구경가야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기 전에 구경을 간다고 한다. 이건 중년 아줌마의 꽃타령이고, 방송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챙겨 보고, 주말 농사를 지으며 은퇴 후 귀농을 꿈꾸는 건 중년 아재들의 클리셰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인 텃밭 가꾸기를 하는 부모님을 보며 ‘왜 저런 사서 고생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돌보는 것은 선의 구현이며 인생의 깨달음을 연결시켜주는 상징인 것을 이제 나는 안다.

2021 임원찬조금 남부명단

기준 : 2021.1.28. ~ 10.29.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5,000	
3	명예고문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JAYA	5,000	
4	명예고문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5,000	
5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6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7	고문	최덕열	PT. SHINTA WOOSUNG	5,000	2020
8	수석부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10,000	
9	수석부회장	손한평	PT. DONG SAN HOLDING	10,000	
10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11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10,000	2020-2021
12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3	부회장	승범수	PT. KORINDO GROUP	5,000	
14	부회장	이정휴	PT.GEE SAN INDONESIA	5,000	
15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16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17	부회장	황규순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5,000	
18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19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20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21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22	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1,000	
23	자문위원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1,000	
24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25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26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1,000	
27	자문위원	이승민	YSM & PARTNERS	1,000	
28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1,000	
29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1,000	
30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1,000	
31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32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33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34	이사	길병완	PT. DAEYONG DUNIA SUBUR	1,000	
35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36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 WOORI TOUR	2,000	2020-2021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37	이사	김서경	PT. ACCENTUATES	1,000	
38	이사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39	이사	김인기	PT. INDOCORE PERKASA	1,000	
40	이사	김일태	PT. OROM	1,000	
41	이사	김종화	PT. ART MOLD INDONESIA	1,000	
42	이사	김종희	PT. YOUNG JIN INDONESIA	1,000	2020
43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44	이사	김희중	PT. JKI CONSULTING	1,000	
45	이사	노태진	PT. SILLA ENGINEERING INDONESIA	1,000	
46	이사	박종훈	PT. PUTRA PILE INDAH	1,000	
47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48	이사	백인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49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50	이사	송영한	PT. KOFORM INDONESIA	1,000	
51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2,000	2020-2021
52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JAYA	1,000	
53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000	
54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55	이사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1,000	
56	이사	유용선	PT. DAE HWA INDONESIA	1,000	
57	이사	이강현	PT. HYUNDAI MOTOR MANUFACTURING INDONESIA	2,000	2020-2021
58	이사	이명균	PT. HIJAU ELEKTRONIKA INDONESIA	1,000	
59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60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000	
61	이사	이완주	PT. PERTIWI INDO MAS	1,000	
62	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1,000	
63	이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2,000	2020-2021
64	이사	이희경	PT. PRIME FREIGHT INDONESIA	2,000	2020-2021
65	이사	장수봉	PT. YOUME INDONESIA	1,000	2020
66	이사	장영관	PT. SURYA MOLD TECH	1,000	
67	이사	장윤하	PT. HARINDO	1,000	2020
68	이사	정제의	PT. SINERGI SUKSES INDONESIA	1,000	2020
69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70	이사	조용재	PT. FOOD KOREA INDONESIA	1,000	
71	이사	최원혁	PT. HILON FELT	1,000	
72	이사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1,000	
73		no name		1,000	

2021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입일 순

번호	성명	금액 (IDR)	납입 연도	번호	성명	금액 (IDR)	납입 연도
110	강윤석	300,000		137	김희진	300,000	
111	서정현	300,000		138	허길	300,000	
112	정창섭	300,000		139	최상직	1,200,000	
113	박건우	300,000		140	최홍지	300,000	
114	공성일	300,000		141	박동갑	300,000	
115	이승민	300,000		142	최임선	300,000	
116	장대영	300,000		143	이성호	300,000	
117	최상직	1,591,000	기부금	144	김영주	300,000	
118	이정휴	300,000		145	최상직	1,200,000	
119	권민우	1,000,000	기부금	146	송영한	300,000	
120	신기엽	300,000		147	이옥찬	300,000	
121	신호진	300,000		148	김서겸	600,000	2020-2021
122	최선명	300,000		149	이명균	300,000	
123	황선	600,000	2021-2022	150	손범석	300,000	
124	오인태	300,000		151	이지선	500,000	
125	최상직	1,200,000		152	이희경	900,000	2019-2021
126	이상복	300,000		153	송은희	300,000	
127	김혜아	300,000		154	김우재	300,000	
128	류완수	300,000		155	김종헌	300,000	
129	문해정	300,000		156	이진호	300,000	
130	허성부	300,000		157	이지완	300,000	
131	박재한	300,000		158	이지선	500,000	
132	황규순	300,000		159	황의상	600,000	2020-2021
133	정명일	300,000		160	정곤영	300,000	
134	엄순금	300,000		161	김태원	300,000	
135	홍성민	300,000		162	박종훈	300,000	
136	홍준기	300,000		163	손한평	300,000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2020년 연로하고 병든 불법체류자 A씨의 귀국을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웨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 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 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 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 전화.....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관.....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 6555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현재 2021. 6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1361-472 1735]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영사협력원	이 태 우	0812-3793-9452
		영사협력원	김 갑 수	0811-3945-52
2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사무차장	윤 병 결	0811-210-4622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수석총무	조 웅 기	0812-4666-5907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수석부회장	김 화 룡	0816-807-681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수석총무	이 승 현	0811-9780-28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김 신	0812-2991-58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수석부회장	이 옥 근	0815-7500-8170
11	망그랑반뜰한인회 [0821-8166-6137]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3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14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정 성 화	0821-5497-9998
		수석부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배 성 운	0813-7180-6330



협력하는 한인사회

함께라면 COVID-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세무상담은 텍스트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 주요업무 ·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헌)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만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 테 리 어
익 스테 리 어
경 관 조 명
간 판

-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오롬컨설팅
PT.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omchris@gmail.com (021) 2245 5879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헌)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던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뎀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옥)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중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중곤)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JASMIN HAIR SALON

Darmawangsa Squire 1F Unit 146
Jakarta Selatan

예약문의 : 021 7280 0019
0811 956 2500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존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골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다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94 433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깍뚝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아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트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요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짜카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카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보찌까랑)	0813	1415 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보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쉴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세드라아트스쿨(리보찌까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정	453	1166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C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 · 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 · 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당분간발리한인회로연락
주시기바랍니다

<발리 한인회 주소>

Jl. Kutat Lestari Gg. 6 No. 2A, Sanur,
Kecamatan Denpasar Selatan
Kota Denpasar Bali 80227
사무실 전화 번호 0361 472 1735
한인회 사무국장/영사협력원
이태우 0812 3793 9452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Pratama



WRITE THE FUTURE TOGETHER

FOR THE NEXT

30 ***YEARS***

PRATAMA GROUP과 함께할 당신을 초대합니다
경력 및 신입 수시 채용